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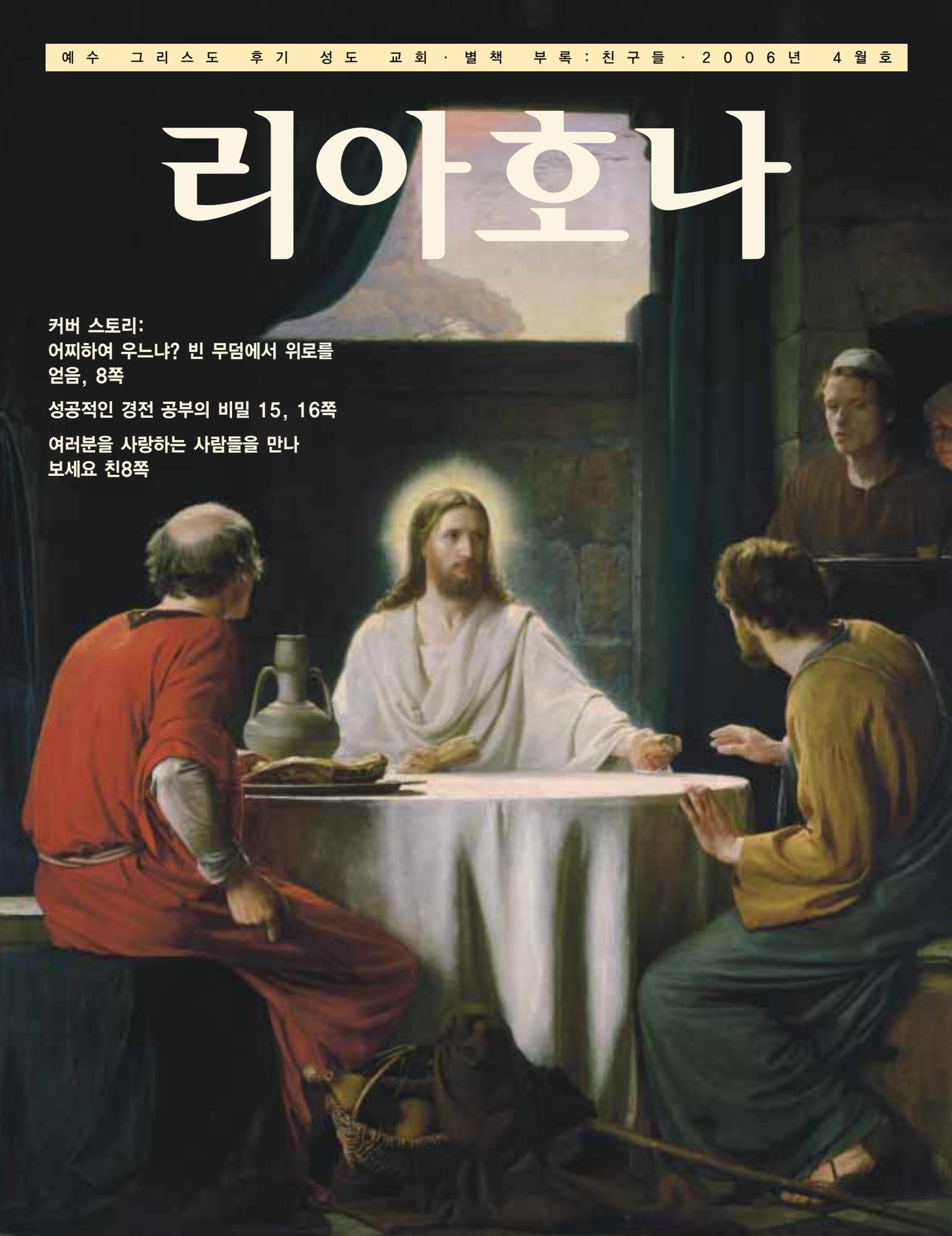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어찌하여 우느냐? 빈 무덤에서 위로를
얻음, 8쪽

성공적인 경전 공부의 비밀 15, 16쪽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세요 친8쪽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그 이전에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그분은 권세와 아름다움과 생명
속에서, 즉 잠자는 모든 자의 첫 열매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2)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확신 속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동산에서 빈
무덤까지”, 8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도 케이 페커, 엘 톨 페러, 러셀 엠 넬슨, 델리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무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이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알 발 존스,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버안 폴슨, 새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러, 채넷 토마스, 플 벤덴버그, 줄리 워털, 킴벌리 웹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편집 인턴 사원: 브리트니 존스 빔, 니콜 시무어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타스,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

통 권: 제 481호, 제 43권, 제 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자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서모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량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April 2006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8 복음 고전: 동산에서 빈 무덤까지
- 12 잃었던 것을 찾음 **마리 산체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각 자매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함
- 28 선언문: 지침, 위안 및 영감 **이 제프리 힐**
- 33 발 밑의 두 아이 **아이다 엘 에빙**
- 34 독신과 기혼자들: 신앙 안에서 함께 함 **캐슬린 루벡 피터슨**
- 39 후기 성도의 소리

선교사 해임 접견 **오펠리아 제이 우르타도**
식품이나 십일조나? **살렛 아놀드**
여러분의 책은 참된 책임입니다 **앤 큐**
복음 안에서 성장함 **더글라스**
자르도

34 독신과 기혼자들: 신앙 안에서 함께 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안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에서 빈 무덤까지”, 8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부활절 프로그램을 만든다. 가족들을 지명해서 인용문을 차례대로 읽게 한다. 구주, 부활절, 성찬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골라서 인용문 사이사이에 부르게 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우리 눈 앞에 경전이 있으므로”, 16쪽: 물몬경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장을 하나 선택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가르친 경전 공부의 다섯 가지 원리들을 설명하고, 선택한 장을 공부할 때 이를 사용한다. 가족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기록할 경전 일지를 기록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완벽한 복귀”, 44쪽: 사람들이 불쾌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 몇 가지를 적는다.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을 역할극으로 보여 주게 하고 이 기사를





우리 주 아메리칸포크 엘티스 파인아트 재단, 복시 공지

어찌하여 우느냐, 사이먼 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져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5~16)

청소년

- 7 포스터: 사랑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15 나의 경전 비밀 펠리사 두마이어 아이나
- 16 우리 눈 앞에 경전이 있으므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2 진리를 찾기 위한 싸움 돈 엘 설
- 26 가정의 평화 익명
- 44 완벽한 복귀 리차드 디 호크스
- 46 질의 응답: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괴롭히고 놀립니다.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22 진리를 찾기 위한 싸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택할 때 그 약속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이번 호부터 매달 정의반 반지 그림을 실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 하시면서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화를 내기보다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게 한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친10쪽: 기사를 읽고 에릭슨 형제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어떤 일을 잘 했는지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배려심 있는 복음 교사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적 성품을 개발시키는 방법을 토론한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움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친14쪽: 이 기사에서 굵은 글씨로 인쇄된 단어들을 몇 개의 종이 쪽지에 적는다. 쪽지를 상자에 넣어 둔다. 기사를 읽은 후 각 가족에게 쪽지를 하나씩 집게 하고 그 위에 적힌 것들이 린지가 간증을 얻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토론한다. 가족에게 각자의 느낌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며 함으로써 무엇이 그들의 간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지 나누도록 한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회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린다 매글비
- 친6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음
- 친8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 친10 평범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테스 힐모
- 친13 노래: 고요하고 작은 음성 메릴 브래드쇼
- 친14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린지 엠
- 친16 주 예수를 닮으려고: 침례를 받겠다는 나의 결심 호세 엠

친10 평범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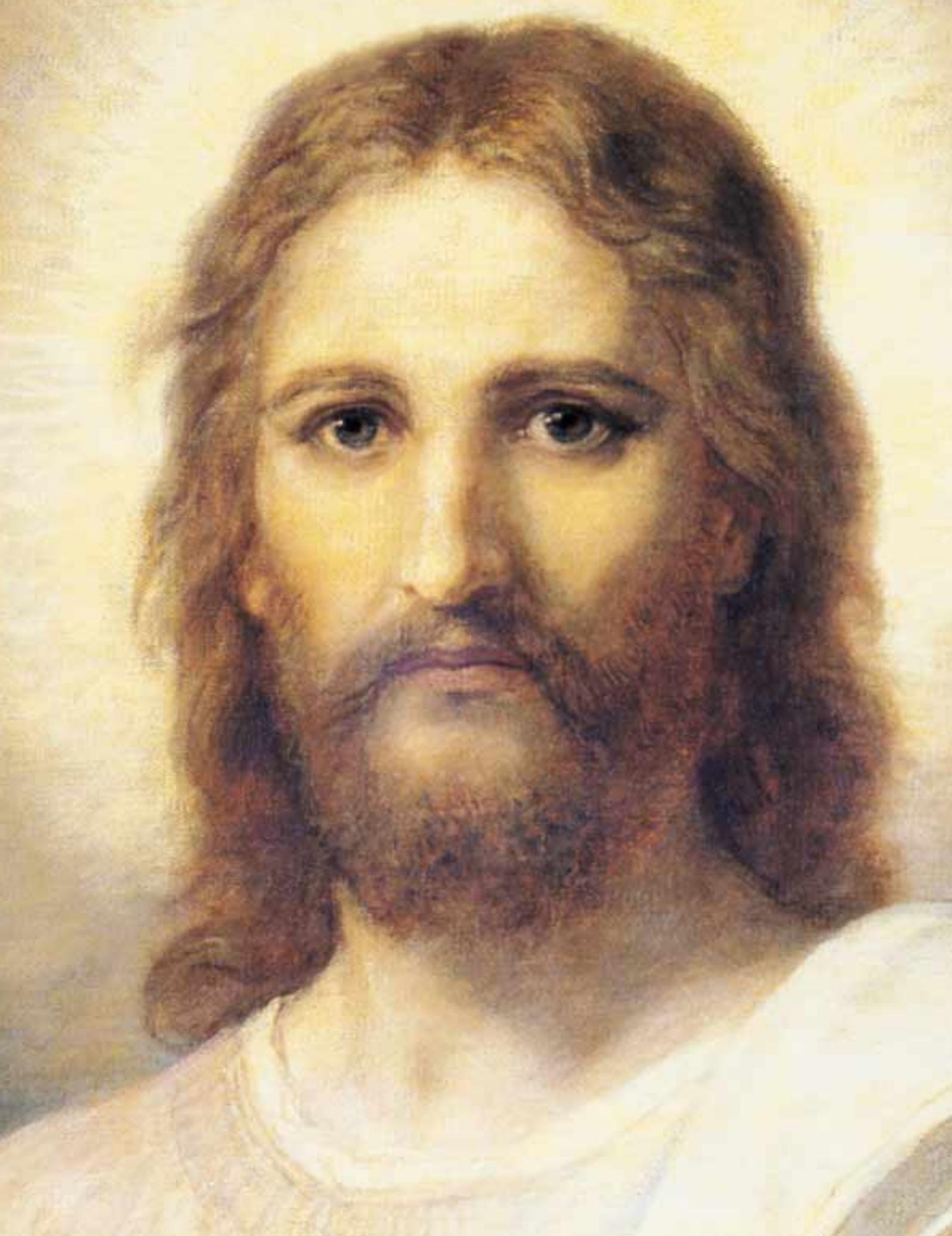
앞: 엠마오의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마크 엘버트 이스트먼드, 복사 금지.

친구들 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이먼 듀이, 유타 주 아메리칸포크 앨리스 파인아트 제공, 복사 금지.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부활절, 8, 친2
가르침, 1	사랑, 친8
가정 복음 교육, 6, 친10	사랑, 28
가정의 밤, 1	선교 사업, 22, 39, 친6
가족 선언문, 28	성신, 친13
가족 역사, 12	성전 결혼, 12, 39
가족, 12, 26, 28, 33	성전 사업, 12
간증, 친6, 친14	속죄, 8
경전 공부, 15, 16	신성한 본질, 25
노래, 친13	십일조, 39
논쟁, 26	십자가에 못박힘, 8
단합, 34, 44	예수 그리스도, 2, 7, 8, 친2, 친14
독신, 34	육아, 28, 33
모범, 2, 44, 46	초등학교, 친4
물문경, 22, 39	침례, 친16
박해, 46	폴란드, 22
방문 교육, 25	회개, 친4쪽
봉사, 2, 39, 친8	부활, 7, 8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주 오랜 옛날에 먼 나라에서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¹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말씀으로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본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² 미대륙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 답으로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³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모습을 추구함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며,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러한 교훈이 한 가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⁴

우리의 필멸의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충고는 하늘의 인도를 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음으로 끝을 맺는 명령이 따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⁵

가장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추구함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구주께 가까이 다가갔는가? 내일은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나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가족이 나아갈 길을 선택함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참으로 그들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흔히 잊혀지곤 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물결에는 다음과 같은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가장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추구함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구주께 가까이 다가갔는가? 내일은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나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와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희망은
가정에서 자라나거나
파괴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피난처 이상의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곳, 밀려오는 폭풍이 문
밖에서 멈춰 서는 곳, 사랑이
다스리고 평화가 깃든
곳이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뿌리로, 가족으로, 배운 교훈으로, 살아 온 삶으로, 보여진 모범으로, 가족 가치관으로 되돌아가라.” 많은 경우 이는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최근에 와서 찾지 않았던 다락방을 뒤져 보거나, 좀처럼 읽지 않던 일기를 읽거나, 거의 잊혀진 사진첩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시인 제임스 배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이월의
삶에 장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다.”⁶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부모님에 대해서는?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수년 전, 한 아버지가 십이사도 보조였던 엘레이 엘 크리스천슨 장로(1897~1975)에게 자신이 새로 구입한 보트에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슨 장로는 “안식일 파괴자”로 부르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예비 선원이 자신의 자량과 기쁨이 안식일 파괴자가 될지 안식일 수호자가 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 결정은 그의 자녀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희망은 가정에서 자라나거나 파괴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피난처 이상의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곳, 밀려오는 폭풍이 문 밖에서 멈춰 서는 곳, 사랑이 다스리고 평화가 깃든 곳이어야 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는 편모로서 때로는 어지러운 집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텔레비전으로 연차 대회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네요’ 저는 ‘무슨 말이니?’ 라고 물었고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보여 주셨지만, 그저께 밤에 뭘 물어 보려고 엄마 방에 갔을 때 엄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엄마한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제게도 중요할 거예요.’” 그 편지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을 아이가 보기 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얼마나 훌륭한 교훈입니까.

소년 시절 어느 어머니날, 저는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와드에는 맹인인 맬빈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뛰어난 성악가로 마치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듯이 청중을 마주 보고 선 다음, “훌륭한 나의 어머니(That Wonderful Mother of Mine)”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밝은 기억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남자들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집사들은 어머니 한분 한분께 화분에 담긴 작은 제라늄을 드리기 위해 회중 사이를 돌았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계셨고 중년의 어머니들도 계셨으며, 인생의 끝자락을 붙들고 계신 노년의 어머니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모든 어머니들의 눈빛이 자애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글귀의 참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꽃을 주는 사람의 손에는 꽃향기가 남아 맴돈다.” 저는 제가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봉사에 바침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복음에 대한 간증의 필요성은 언제까지나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성한 봉사에 우리의 삶을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봉사에
우리의 삶을
바칠 것을
요구받습니다. 가르쳐야 할
교훈들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가르쳐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왕의 권고를 기억합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⁷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더 높고 더 나은 길로 끌어올리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노랫말과 같습니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⁸

진정한 신앙이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다음의 교훈을 배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⁹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신성한 목적들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성취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감독으로 봉사할 때 저는 유럽의 알사스로렌 지방에서 온 미망인인 오거스타 슈나이더를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어와 독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영어는 조금밖에 몰랐습니다. 그 느낌을 받은 이후로 수년 간 저는 성탄절기에 그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오거스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을 감독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검소한 아파트의 특별한 곳으로 가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5×20cm 정도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펠트천 조각으로, 그녀의 남편이 제1차 세계 대전 때 프랑스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메달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제 마음과 같은 이 소중한 보물을 받아 주셨으면 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친척 중 한 명에게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물은 감독님 것이예요. 감독님은 프랑스 사람의 영혼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세계 특별한 선물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거스타는 세상을 떠나 그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제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프랑스인의 영혼을 가졌다”는 그녀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벤슨 회장님(1899~1994)을 모시고 독어, 불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헌납식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던 중에, 저는 선물로 받은 메달을 가져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불어로 진행된 헌납식 모임 동안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모임 순서지를 보고 알사스로렌 지역의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 도중 저는 반주자의 이름이 슈나이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거스타 슈나이더와 알고 지냈던 이야기를 하고는 오르간 앞으로 걸어가서 그 반주자에게 메달을 건네주며 이름이 슈나이더이니 계보 사업을 하면서 슈나이더라는 이름을 찾으라는 책임도 함께 주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그 모임이 참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슈나이더 형제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영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헌납식 폐회 찬송을 연주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거스타 슈나이더가 가졌던 모든 것이었기에 과부의 랩돈과도 같았던 그 소중한 선물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산 자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프랑스인의 영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해 줄 사람의 손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할 때, 풍성한 축복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우리 시대의 참된 선지자이시며 그분의 지도 하에 진전되고 있는 위대한 사업에서 인도받고 계심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요한복음 14:6.
2. 베드로후서 3:11.
3. 제3니파이 27:27.
4. 요한복음 1:45~47.
5. 빌립보서 4:8~9.
6. *Courage*(1925년), 1쪽.
7. 모사이야서 2:17.
8. 나오미 더블류 랜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쪽.
9. 잠언 3:5~6.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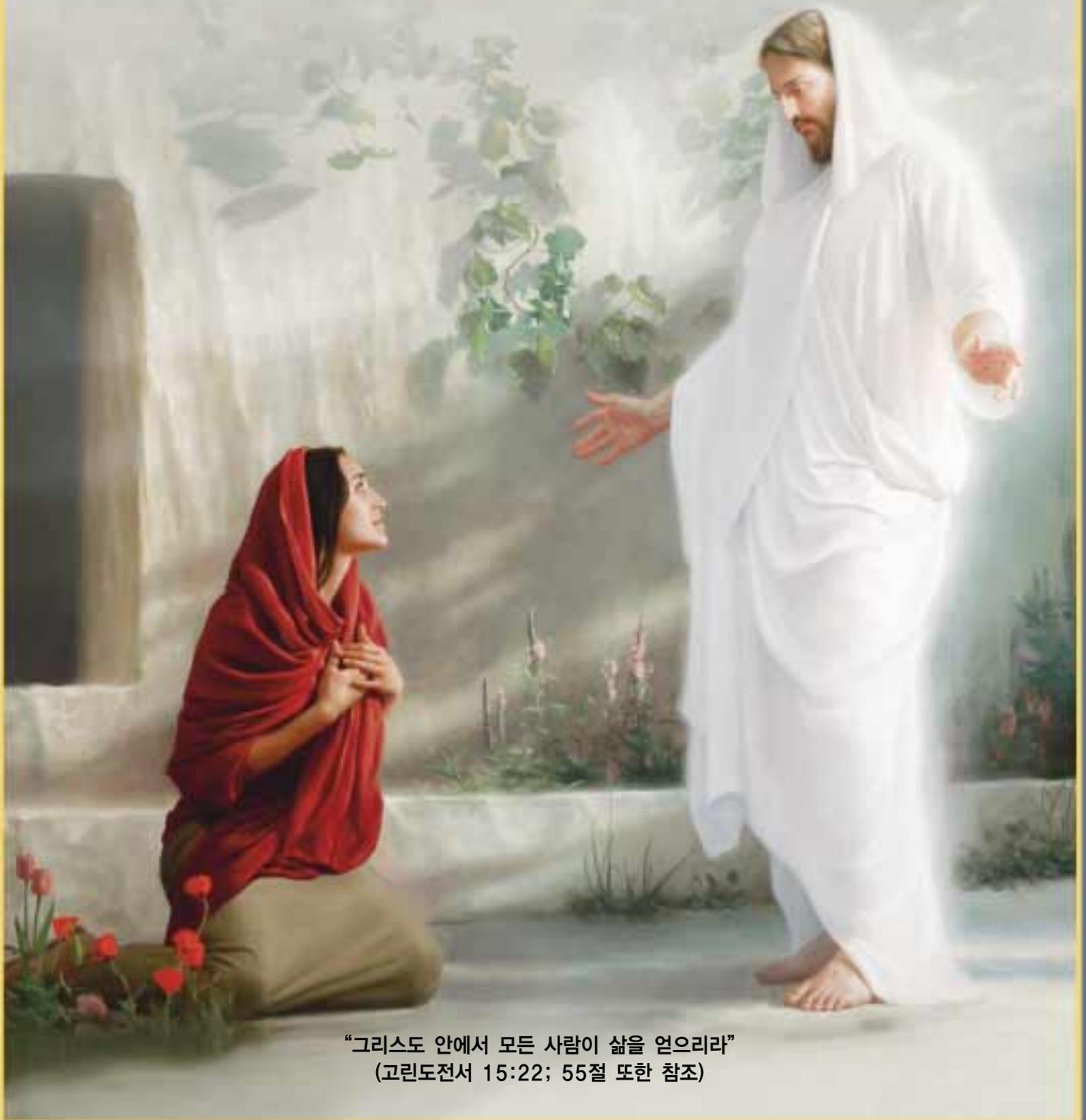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방문 시에 다음의 물건(또는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간다. 거울, 집 그림 또는 사진, 정원용 도구. 제3니파이 27장 27절을 읽고 이 성구가 이 세 물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몬슨 회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각 항목을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는 시청각 자료로서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사용한다.(예를 들어, “가장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추구함” 항목에서는 거울을 사용한다.)

2. 몬슨 회장은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라고 질문한다. 기사에서 한 예를 나눈 다음, 방문하는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 배운 교훈에 대해 질문한다. 적절한 경우 가족 역사에 추가할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권유한다.

3. 메시지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몬슨 회장의 메시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몬슨 회장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몬슨 회장은 이 가르침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2; 55절 또한 참조)

무덤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 조넨 브러키, 워터 주 이메리안프, 엘리스 피인이트 제공, 복서 금지

동산에서 빈 무덤까지

갯세마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1862~1933)

“갯세마네-이 명칭은 ‘착유기’를 뜻하는데, 아마도 이 동산에서 재배된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 그곳에 있던 물방앗간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요한은 이곳을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명칭을 근거로 그곳이 올리리로 둘러싸인 개인 소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은밀히 대화하기 위해 외진 곳을 찾으셨을 때 종종 방문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적해 주고 있다.(요한복음 18:1, 2)”(예수 그리스도, 제3판[1916년] 620~621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1876~197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손발에 못이 박혔을 때가 바로 그의 수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육체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갯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산에서였습니다. 그가 육체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동산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통을 겪어 봤고, 여러분도 고통을 겪어 보셨으며, 고통은 때때로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가 땀처럼 몸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인 그러한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구원의 교리*, [1954~1956년] 브르스 알 맥쿱키, 124~125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1899~1994)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열두 제자 중 세 명을 데리고 갯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사가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로 찢림을 받으셨으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몸소 자진해서 감수하시면서 하나님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이사야 53:4~6 참조)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몸소 짊어지신 곳은 갯세마네였으며, 갯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통은 모든 인류의 누적된 무거운 짐의 무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갯세마네에서 그분은 모든 인류가 회개하여 그에게로 올 수 있도록 만물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의 폭이나 깊이나 높이는 물론이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혀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년], 14쪽)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겪으셨던 고뇌가 얼마나 격심했으며, 그 고뇌의 큰 뜻이 무엇인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 그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는 아픔을 느끼게 한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인 고뇌만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고뇌였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인한 인내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인체 기관이 지탱할 수 없게 되어 무의식과 망각의 가사 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고뇌로 괴로워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곧 ‘이 세상 임금’이 위협하는 모든 공포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셨다.

“어느 의미로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실제로 구주께서는 아담의 때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몸소 짊어지셨다.”(예수 그리스도, 613~614쪽)

존 테일러 회장(1808~1887)

“나약한 인류가 피했던 응집된 짐, 이 혹독하고 불가해한 압박, 신성한 공의에 의한 이 엄청난 강요 하에 신음하면서, 또한 커다란 핏방울을 땀처럼 흘리면서 겪었던 고뇌를 통해 그분은 외치게 되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분은 광야에서 그의 위에 지워진 무거운 짐과 씨름하셨다. 만물 아래에 놓여져 정신은 고뇌와 고통으로 넘치며 외롭게, 또한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버려진 채, 고뇌로 땀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그를 그곳에 풀어놓은 어둠의 권세와 투쟁하셨다.”(The Mediation and Atonement [1882년], 150쪽)

갈보리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십자가에 못박힘에 따르는 무서운 고통에 더하여, 겻세마네 동산의 고통이 재생되어 인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된 것 같다. 그 가장 비통한 시간에 죽어 가는 그리스도는 홀로 계셨으며 가장 끔찍한 현실 가운데 외로이 계셨다. 이들의 극히 중요한 희생의 뜻을 모두 완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친히 함께 하시는 격려를
거두시고 죄와 사망의 힘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인간의 구주께 남겨 주신 것
같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낀 연약한
기간은 곧 지나가고, 육체의 자연적인
욕구가 다시 나타났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괴로움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타는 듯한 갈증인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주께서는 ‘내가 목마르다’(요한복음
19:28)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제자인지
또는 불신자인지 기록되지 않았으나 옆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가 급히 해용에
신포도주를 담뱃 적시어 갈대 또는
우슬초의 줄기 끝에 꿰어 주님의 타는
입술에 대었다.

“자기가 이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그의 대속하는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과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의 그의 사명이
영광스러운 성취를 이룬 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는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라는 성스러운 승리를 큰 목소리로
외쳤다. 존경과 복종과 안심을 갖고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 그는
머리를 숙이고 자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다. 그의
생명은 그가 허용치 않았더라면 빼앗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겐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의 고난 중,
초기에 고통을 베풀게 하는 죽음은 달갑고
반가운 것이었겠지만, 그는 모든 것이 정한



대로 완성될 때까지 사셨다.”(예수
그리스도, 660~661쪽)

빈 무덤 존 테일러 회장

“하나님으로서, 그는 만물보다
낮아지셨으며 자신을 인간의 타락한
상태로 전락시켰으며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는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은 기쁨을 타고 나는
축복을 받으신 그분은 세상과 지옥이
연합한 권세 및 사람과 악마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의

도움을 받아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시었으며, 필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대속에 관한 일을 마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메시아,
평강의 왕이시며, 구속주, 구세주가
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43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

“하나님만이 이러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로움의 교사로서,
예수님은 영혼을 선으로 인도하고
선지자로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며,
인류의 지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조직하고,

신권을 소유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장님이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죽음을 극복하고 친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

“어떤 인간의 손도 봉해진 문을 제거하거나 주님을 소생시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법사나 마술사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았고, 치유를 위한 다른 사람에 의한 신권의 행사도 없었지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신 그 하나님은 신성한 권능으로 자신의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진 영혼은 후에 그분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영의 세계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꿇음을 수 없는 벽을 무시하고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 육체로 다시 들어가셨고, 모든 능력이 예리하고 기민한 상태로 썩지 않는 불멸의 육체로 변화하셔서 돌문을 옆으로 치우고 다시 사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대구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500명 이상의 나무랄 데 없는 목격자들이 그분과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했으며,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의 육신을 만지고 옆구리와 발과 손의 상처를 보았으며, 그들과 그분에게 일상적이던 주제를 토론했고, 여러 가지 틀림없는 증거에 의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및

최후의 가장 두려운 적, 즉 사망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와 그 안에 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지상에 여러 차례 나타나신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불멸의 몸이 되셨으며, 이 위대한 부활과 불멸의 축복은 우리의 구속주를 통해 이제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17~18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

“그런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안식일, 즉 일주일의 첫째 날이 밝아 왔습니다.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무덤에 왔던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던 천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그분은 권세와 아름다움과 생명 속에서, 즉 잠자는 모든 자의 첫 열매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확신 속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분은 죽어 가고 있던 예수였습니다. 무덤에서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다의 배신이라는 쓴 열매, 베드로의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빈 무덤은 그분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라는 욥의 응답 받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상징물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 어떤 표적이나 예술 작품, 형태의 묘사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이 그러한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천하거나 허울만 있거나 불쾌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짊어져 온 그분의 이름이라는 상징을 더욱 빛나게 갈고 닦지 않고서는 선하고 점잖고 관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표현,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간증의 선언으로서 우리의 삶을 상징으로 삼아야 합니다.”(“우리 신앙의 상징”,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4~6쪽) ■

잃어버린 것을 찾음

잃어버린 조상을 찾는 일을 돕고 기뻐하면서
나는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없음을
한탄했다.

마리 산체스

나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교회 기록을
부지런히 살펴봄에 여러 세대 전에
우아한 스페인풍 필법으로 쓰여진,
스페인 북부에서 온 나의 조상들의 수많은
이름들을 읽어 내려갔다. 이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작은 어촌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다. 마을은
작은 해안 어귀에 자리잡고 있었고
유칼립투스 나무가 자라는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화롭고 조용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 소박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느낌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기록들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안드레스 산체스는 1930년대의





스페인 내전 동안 파괴될 뻔했던 이 기록들을 구해냈다.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 그 이야기와 나의 연관성은 그 기록을 찾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밝혀졌다. 나는 할아버지를 뵈는 적은 없었지만, 이 이름들과 낱씨들을 보면서 그의 영을 느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 만 명 이상의 우리 조상들에게 성전 의식을 해 주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은 지난 몇 년 간 대부분의 날들처럼 내 딸과 그 애가 선택한 길에 대한 고통과 슬픔으로 또한 가득했다.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 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불가능에 맞선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 나는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전 의식을 충실히 행하고 있었지만, 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때 나는 내 딸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과거 세대들의 힘이 합류하는 것을 느꼈고, 마이크로필름 기록기 앞에 앉아 교회 기록에서 귀중한 이름과 낱씨들을 발췌하며 어느 정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신념에 따른 선택

안드레스 할아버지는 마을의 지도자로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섯 자녀의 아버지였으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트럭 사업을 운영했으며 자산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기는 스페인 역사상 동요의 시기였다. 스페인 내전은 나라 곳곳에 기아와 파괴를 가져왔다. 정치는 국민들간의 가장 혼란 토론 주제가 되었다. 이 조용한 마을은 유럽 역사상 다른 모든 시기,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전쟁의

참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적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드레스 할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표시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리베르티아(역주: '자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라고 지었다.

침략자들은 도처에서 교회를 불태웠고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다. 이에 저항한 안드레스 할아버지와 그의 좋은 이웃 몇몇은 마을의 작은 교회에 있는 성스러운 공예품과 기록들을 숨겼다. 그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자신과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분은 신념을 가지고 그 선택을 끝까지 고수했다.

결국 적군이 그의 마을에 왔다. 안드레스 산체스란 이름이 발견되었고, 그는 끌려가서 구금되었다. 작은 마을 교회에서 그가 한 행위의 결과로 그는 고문과 박탈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안드레스 할아버지의 사업체와 재산은 몰수당했고 가족은 구결할 정도의 궁핍한 상태에 처해졌다. 감옥의 비참한 환경으로 인해 안드레스 할아버지의 건강은 약해졌고, 얼마 후 결핵에 걸리게 되었다. 그는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온지 2주 만에 죽었다.

마음에서 우려난 희생

주님께서서는 주님을 사랑했으며 이 기록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희생한 한 남자와 몇몇 용감한 친구들의 노력을 잊지 않으셨다. 수년 후 이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의해 마이크로필름화되었다.

그리고 나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우리 할아버지 안드레스 산체스는

1930년대의 스페인 내전 동안 마을 교회에서 가족 기록을 지키는 것을 도왔다.

도서관의 한 어둡한 큰 방에 앉아 그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읽고 있었다. 매우 낯선 이름들을 살펴보는 지루한 작업을 해 나가는 동안 나는 이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었다.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내 마음과 정신에 퍼졌다.

남편과 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모범에서 영감과 용기와 희망을 얻는 한편, 딸을 돕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는 옛 세대들의 힘을 느꼈다.

내가 유타 주 바운티폴 성전의 성전 파일에 나의 가족 이름 중 첫 6,000개의 이름을 가능한 한 완전한 상태로 부합하는 가족에 맞춰 제출한 것은 1999년 3월,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이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을 헌납하신 주였다. 이제 다음 4,000명의 이름도 준비되었다. 성전 의식의 집행을 위해 한 공동 사회 전체 주민의 이름들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의 한 성실한 작은 마을을 위한 구원의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배의 축하

나의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이 집행될 때 남편과 나는 하늘이 우리 딸을 위해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느꼈다. 시간이 흐르자 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토록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평화를 다시 찾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딸은 회개의 힘든 과정을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 아이의 얼굴에 다시 감도는 빛을 보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서 우려난 애원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었다. 모든 자녀들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재를 통해 딸은 치유되었다.

어느 아름다운 저녁, 나는 기쁨의 눈물에 젖은 채 바운티폴 성전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아 합당한 젊은이에게 인봉되기 위해 온 나의 딸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영광스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동안 데스크의 자매가 그 세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 의식을 받을 죽은 자들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다. 우연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은 내가 성전철로 제출했던 이름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두 배로 축하할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페인 조상들을 위한 대리인으로 봉사하면서 기뻐했고, 그들도 우리 딸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세세 영원토록 인봉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영원한 가족의 고리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였다. ■

마리 산체스는 바운티폴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바운티폴 제11와드의 회원이다.

우 리는
성전에서
우리의
스페인 조상들을 위한
대리인으로 봉사하면서
기뻐했고, 복음으로
돌아온 우리 딸을
위해서도 기뻐했다.



나의 경전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

멜리사 두마이어 아이나

우리가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구주의 평화이다. 나는 경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평화를 자주 느꼈다.

나는 물문경을 끝까지 읽기 위해 많은 목표를 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차츰 흥미를 잃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시작하곤 했다. 대학교 일학년들을 마친 후에야 나는
진실로 “말씀을 시험”해 보았다.(앨마서 32: 27) 나는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 30분 동안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할당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기 위한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경전 읽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경전을 읽은 후,
행복과 평화를 느꼈다. 나의 하루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나는
더욱 쉽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영은 전보다 더 가까이
머물렀다.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실제로 더
행복한 나날을 누렸다.

나는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전을

읽으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들을
가져다 줄지 몰랐다. 나는 경전을 읽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을 알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앨마는 간증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앨마서 32:27)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우리가 왜 경전을 읽으라는
명을 받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게는 작은 신앙,
즉 매일 잠깐 동안 경전을 읽을 정도의 작은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앨마가 가르쳤듯이 나는 간증을 얻었다.

나는 여러분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게 그것을 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전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행복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시도해 보라. 시험해 보라.

■ 멜리사 두마이어 아이나는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스테이크 뉴홀 제1와드의 회원이다.

우리 눈 앞에 경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경전 공부에 다섯 가지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구주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난 20년에 걸쳐 베드나 자매와 저는
수만 명의 후기 성도 젊은이들을 만나
회복된 복음의 교리에 대해

토론했으며, 일상 생활에서 올바른 원리대로 살 때
따르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그룹의 젊은이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가진 복음 지식의 깊이와 그들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았던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를 더 교화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훌륭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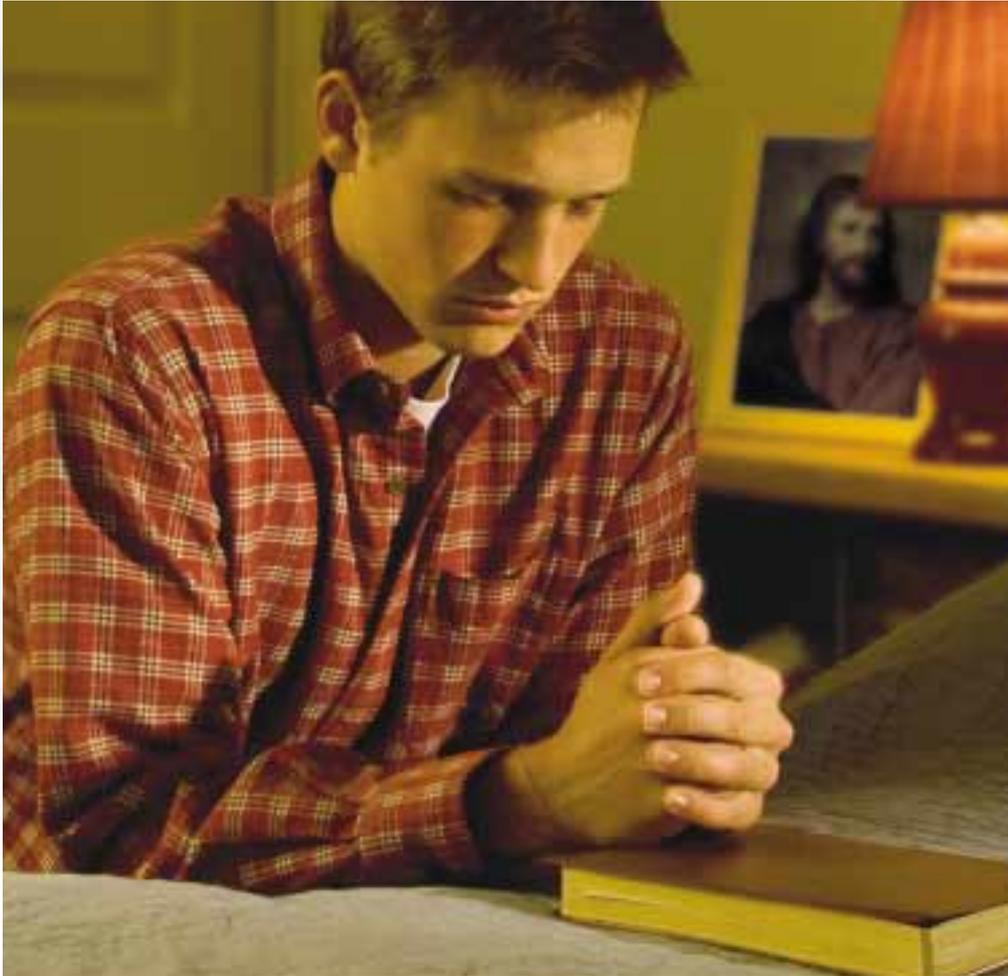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모세서 1:39)이 그분의 일이며 영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위대한 일을 돕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위대한 임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교리와 성약
20:59)하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모로나이서 10:32)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의 제자와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배우고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고귀한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은 정해진 출발점이나
종점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발전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첫 단계로서, 우리는 분명
지식을 얻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과 성역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분께 나아오려면 지속적인 순종과
우리의 생각, 동기, 대화, 행동에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구 주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할 때”,
우리는 강화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경전은 실로 저에게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전을 공부하라”는 제 축복문의 강한 권고는 제 머리와 마음속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은 수십 년 동안 저의 복음 공부를 위한 초점을 제공했으며, 약속된 영감의 축복 및 그 교훈과 연관된 권고가 제 삶에서 거듭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해롤드 비리(1899~1973)회장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제가

1971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기간 도중, 약 300명의 장로들과 자매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의 어셈블리 룸(assembly room)에서 리 회장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성스러운 장소에서 주님의 특별한 증인들 중 한 명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은 제게 있어 참으로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니다.

가르침의 형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리 회장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 주제에 대해서든 질문을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리 회장님이 모든 질문을 경전을 통해 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코 그분처럼 경전을 잘 사용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그곳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저는 가르칠 때 경전을 공부하고 사용하기로, 그리고 리 회장님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갓 선교사로 나온 경험 없는 열 아홉 살의 선교사가 했던 그 결심은 적절히 표현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인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음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되는

영에 대한 것들은 오직 영의 영향력에 의하여, 또한 그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공부하는 동안 이해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63)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에 대해 배우는 동시에 더욱 그분과 같아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경전을 공부하는 것, 즉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니파이후서 32:3)입니다.

제가 읽다가 아닌 공부하더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대충 읽거나 속독을 훨씬 넘어선 집중과 강도를 의미합니다. 공부하고 흡족히 취한 후 진실한 기도, 또한 우리가 배운 원리들과 진리의 확고한 적용이 뒤따를 때, 개인적인 결심, 영적인 결의, 그리고 밝은 간증의 빛이 생기게 됩니다. 공부, 배움, 기도, 그리고 복음 진리의 적절한 적용은 모두 구주께 나아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나아가는 데 있어

과정에서 경전의 중심적인 역할에 주목해 보십시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공표하는 계시들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한다면 그분은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추측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전을 만드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기 때문입니다.”¹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각자 다른 어떤 사람과도 별개로 영의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예수는 구주이며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경전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음성, 즉 귀로 듣는 음성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음성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영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18편 34~36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이 말이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언할지니라.

“이는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음성인 연고라. 이는 이것이 나의 영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짐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너희는 이를 서로에게 읽어 줄 수 있으되 나의 권능으로써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내 말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각자가 거듭해서 거룩한 경전으로 돌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경험과 확신을 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거룩한 경전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2:3)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며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구주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그러므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분을 올바르게 따르는 일에 선행합니다. “무릇 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9:7) 진실로 우리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듣고 느끼고 따르는 영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능력은 부지런한 경전 공부를 통해 강화됩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실한 경전 공부는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흡족히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가 어떻게 더욱 교화적이고 효과적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개인

매일 정해 놓은 시간과 가능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면 경전 공부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경전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금고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열 수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란 단순히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경전 공부가 더욱 교화적이고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1: 이해력을 간구하고 성신의 도움을 청한다.

영에 대한 것들은 오직 영의 영향력에 의하여, 또한 그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경전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 아들의 이름으로 열렬하고 겸손하게 성신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우리의 배움, 이해력, 그리고 기억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공부하는 동안 이해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또한 공부를 마칠 때 제가 배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됨을 느낍니다.

원리2: 연구한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경전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와 성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옵니다. 경전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금고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열 수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란 단순히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잘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기적이고 부지런한 공부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풍부한 경전의 가르침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구하는 영적인 보물들은 빌리거나 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일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 금고를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리3: 일관성 있게 공부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경전 공부를 할 시간을 찾고자 “바라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매일 정해 놓은 시간과 가능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면 경전 공부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원리 4: 숙고한다. 숙고한다는 말은 고찰, 묵상, 반성, 또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전을 숙고한다는 것은 표준 경전에 담긴 진리와 경험과 교훈들에 대해 경건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숙고의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강요되거나 재촉되거나 급히 해치워질 수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경전을 숙고하고 상기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대답을 유도한 질문, 혹은 예수로 하여금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게 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것입니다.”² 그러므로 특정한 계시, 비유, 혹은 일화에 앞선 질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전체적으로는 거룩한 경전, 구체적으로는 몰몬경을 공부하고 숙고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몰몬경의 저자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을 것들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몰몬경을 공부해야 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몰몬(또는 모로나이나 엘마)에게 영감을 주어 그것을 기록에 포함시키셨을까? 나는 그것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³

벤슨 회장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음이라.”(니파이전서 19:23) 그러므로 우리가 경전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숙고하는 것은 성신의 영감과 도움을 가져옵니다.

원리5: 인상, 생각, 느낌들을 적어 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영적인 인상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감명 깊은 인상들을 기록할 때 종종 더 많은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얻는 지식을 일생 동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밤낮으로 영의 인도를 인식하고 그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을 통해 배우는 여러분의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다른 모든



능력들을 더욱 풍성히 사용하시게끔 할 것입니다.”⁴

경전을 공부할 때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숙고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며, 계속되는 가르침을 위해 성신을 초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전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전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준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든 거룩한 경전에 그 가르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우리로 그의 비밀에 대해 읽고 깨닫게 하며, 그의 계명을 항상 우리 눈 앞에 가지고 있게 한 이러한 것들[경전]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갔을 것이요 ...

“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들이 참되며, 또한 이 기록들이 참됨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 또 우리가 그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있음이라.

“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를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유익을 얻기 바라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모사이야서 1:5~7)

저는 거룩한 경전이 참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구주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우리는 강화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우리 눈 앞에 가지고 있기에 참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

주

1. “To the Honorable Men of the Worl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1832년 8월, 22쪽.
2. *History of the Church*, 5:261.
3. “The Keystone of Our Religion”, *Tambuli*, 1992 8월, 7쪽
4.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 12~14쪽.

경 전을 공부할 때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숙고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며, 계속되는 가르침을 위해 성신을 초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리를 찾기

알투르 토마슈스키는 진리를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응답에 대해 고심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알 투르 토마슈스키는 필요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는 열일곱 살의 나이에 고국 폴란드에서 주지스(역주: 브라질 격투기, 유도의 잡기 기술과 태권도의 발차기 등이 혼용된 실전 무술) 챔피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평화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싸움, 즉 진리를 찾기 위한

싸움에서 이겼을 때 했던 일이다.

소년 시절, 알투르는 성경을 공부했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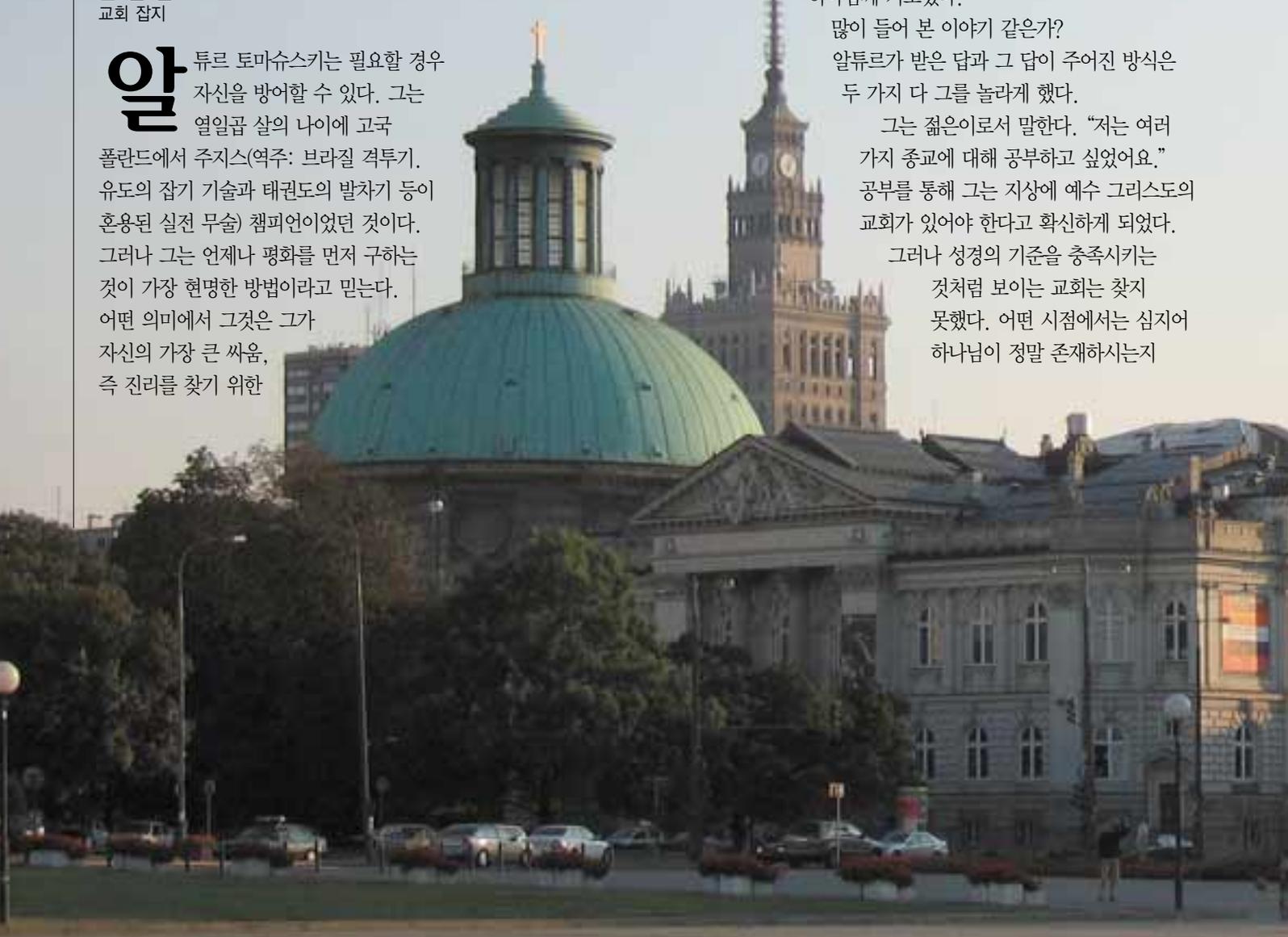
누구에게도 그를 만족시켜 줄만한 답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어느 교회가 참된지 보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많이 들어 본 이야기 같은가?

알투르가 받은 답과 그 답이 주어진 방식은 두 가지 다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젊은이로서 말한다. “저는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통해 그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찾지 못했다. 어떤 시점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위한 싸움

의문을 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살아 있던 신앙이 그의 의심을 극복했다. 그는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열여덟 살의 어느 날, 알튀르는 참된 교회로 인도되기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고모 댁을 방문했을 때, 그는 선반에 놓여 있는 먼지 쌓인 책 한권을 보았다. 제목은 몰몬경이었다. 고모는 그 책을 자매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후 치워 둔 채 잊어버렸다.

알튀르는 그 책을 읽을 것인지 고민하며 집어 들었다 내려 놓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아니, 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오직 성경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책 서문에 있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는 너무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하지만 책의 첫 스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읽은 내용을 일주일 내내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중에 멈춘 곳부터 다시 읽어 볼 생각으로 고모 집으로 돌아갔을 때, 책은 사라지고 없었다.

알튀르가 자신의 몰몬경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 그는 카토비체의 거리에서 선교사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선교사들이 약속한 대로 즉시 전화를 하지 않자(현재 선교사인

아래: 알튀르 토마슈스키 장로와 동반자 리키 디아스 장로가 폴란드 바르샤바 거리를 걷고 있다.





토마슈스키 장로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는 어느 일요일 아침, 선교사들이 준 광고지에 나와 있던 집회소 주소를 보고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은 우연히도 금식 주일이었고, 회원들이 간증을 전하는 동안 알튀르는 처음 몰몬경을 읽은 후 그와 함께 머물러 있던 것과 같은 평화와 확신의 느낌을 얻었다. 그 느낌은 매우 강해서 그는 일어나 몰몬경이 참되다는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알지 못했다.

선교사들이 마침내 그에게 몰몬경을 선물로 주면서, 그 책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었다. 알튀르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는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읽고 기도했다. 찾아온 답은 매우 강해서, 단지 느낌뿐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진리를 더욱 명백하게 해 주는 “눈에 비치는 빛”과 같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답이 정말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소리 내어 웃었다. 그 답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확신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며 복잡하지 않다고 확신시켜 주는 똑같이 강한 응답을 받았다.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집에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 어머니와 두 남동생은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는 적대적이었다. 알튀르는 2002년에 침례를 받은 후, 지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다.

폴란드의 종교적 전통은 매우 강하다. 그가 왜 국가의 주된 종교를 떠나고자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모범이 진리를 찾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했다고 말한다. “저는 그분들이 알고 계셨던 방법대로 저를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홀로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토마슈스키 장로의 남동생인 패트릭 토마슈스키는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스스로 알아보라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못했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일을 해서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삶의 일부였고 그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주지스 연습과 경기를 기꺼이 포기하려고 했다. 그는 주지스가 그에게 일종의 예술과 같다고 말한다. “연습을 할 때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일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없어졌다.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그의 고향, 미스토비체를 떠나기 전에, 토마슈스키 장로는 역시 주지스에 매우 열심이었던 남동생에게 한 가지 도전을 제시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운동을 포기하는지 알고 싶다면, 몰몬경을 읽고 그 책에 대해 기도해 봐.”

토마슈스키 장로는 주지스 훈련을 통해 키운 인내, 겸손, 근면 등과 같은 특성들이 선교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선교 사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제가 정말 피곤할 때, 힘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고 어찌면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다.

선교사로서 그에게 가장 좋았던 날은 남동생이 몰몬경을 읽고 기도해 보라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다. 패트릭 토마슈스키 역시 간증을 얻었다. 그는 2004년 8월에 침례 받았다.

이제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토마슈스키는 두 명이 되었다. ■



각 자매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각 자매들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의 딸이며 신성한
성품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보니 디 파킨,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저는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새로워지고, 강화되었으며, 더 좋은 엄마와
아내와 하나님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음에 대한
이해력과 구주의 사랑,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넓어졌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35쪽)

로마서 8:16~17: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1895~1985):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아내와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의무에서
자신이 지닌 역할의 귀중함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사랑과
배움, 보호와 진보의 장소가 되게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개인교 교회 전체로서의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얼마나 충실히 초점을 맞추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Living the Gospel in the
Home”, Ensign, 1978년 5월, 101쪽)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에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상속된 본질의
일부로 그러한 신성을 지닌
여러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성과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며 도움을 베푸는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상속받은
신성한 속성의 일부인 자비라는 특성을
여러분 내부에서 발전시키십시오.”(“The
Light within You”, Ensign, 1995년
5월, 99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2보좌: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자기 가치에 대한
위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병고침의 권세를 통해
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과 평정으로 비탄과 도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여성은 주체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며,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독신이거나
기혼이거나 관계없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이제껏 태어났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의 의미”, 리아호나, 2000년 1월,
123~124쪽) ■



가정의 평화



오빠와 나는 서로 다른 우리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익명

내가 열두 살이었을 때 나는 교회에 대한 내 믿음을 변호해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후기 성도들이 대부분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었다. 오빠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있는 동안 열편 토론을 벌이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나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마침내 울면서 방에서 나갔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내가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지 않는 일부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다음은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이다.

1. 예절을 기억한다. 가족들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들 모두를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가족 토론이나 의사 결정에 포함시킨다.

2. 가족 구성원들을 모든 가족 활동, 즉 교회와 연관된 것들이라도 모든 활동에 포함시킨다. 오빠는 수년 동안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결혼식이나 유아 축복 및 기타 활동에 초대받기를 원한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환영받기를 원한다.

3.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 간증을 쌓는다. 오빠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나는 내가 배운 것이 참된 것인지 확실히 알고자 결심했다. 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얻을



모범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표준을 지키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모범이 우리가 지닌 목적의 미덕을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증명해 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Contend Not with Others”, *Tambuli*, 1989년 11월호, 4쪽.

때까지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

4. 종교적인 주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교회는 후기 성도의 삶에서 매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주제를 회피하면 가족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비밀로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의 대화에 교회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들을 포함시킨다.

5.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항상 오빠가 틀렸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오빠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놀라게 되었다.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가족 중 일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오빠였다면 나 역시 때때로 그런 일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

6.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전에 나는 오빠와 논쟁하고 그의 믿음을 공격하곤 했다. 마침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성숙했을 때, 나는 사과를 했고 오빠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아졌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사과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만 사과하면 된다.

7. 분쟁을 피한다. 영은 분쟁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

만약 영이 사라진다면, 배움과 성장에 대한 기회들도 사라진다. **8.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을 격려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충만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이 가족들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 만큼 또한 그들의 의롭고 건전한 교회 활동들을 지지한다. ■

선언문

지침, 위안 및 영감

이 제프리 힐

브리검 영 대학교 가족 생활 부교수

1995년 9월에 있었던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준비한 문서를 낭독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러운 곳이며 가치가 전도되는 곳입니다. 시간이 입증해 준 행동 표준을 저버리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소리가 있습니다. ... 표준과 가치관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토록 많은 유혹과 권유에 대해, 우리는 주의시키고 미리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히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9~100쪽) 이 선언문은 그것이 쓰여진 이래로 가치관이 계속 전도되고 도덕이 점점 쇠퇴해가면서 그 내용이 예언적이었음을 입증했다. 본 기사는 선언문에 나와 있는 원리들이 어떻게 가족들이 역경의 시기 가운데서도 평안과 행복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19 95년 9월 23일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날이었다. 스테이크 고등평의회 일원이었던 나는 상호부조회 총회 방송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나는 처음으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내용을 들었다.

그 즉시 점점 밝아지는 빛이 내 정신과 마음을 비추었다. 나는 말씀에 완전히 몰두해 귀 기울였다. 나는 바로 얼마 전 가족 연구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지만, 이제 대학원에서 거의 5년간 공부한 것보다 더 순수한 가족에 대한 진리를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들었다. 나는 일어서서 갈채를 보내고 싶었다. 힝클리 회장님이 말씀을 끝맺으시는 동안 나는 이 원리를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고 세상과 나누어야겠다는 커다란 소망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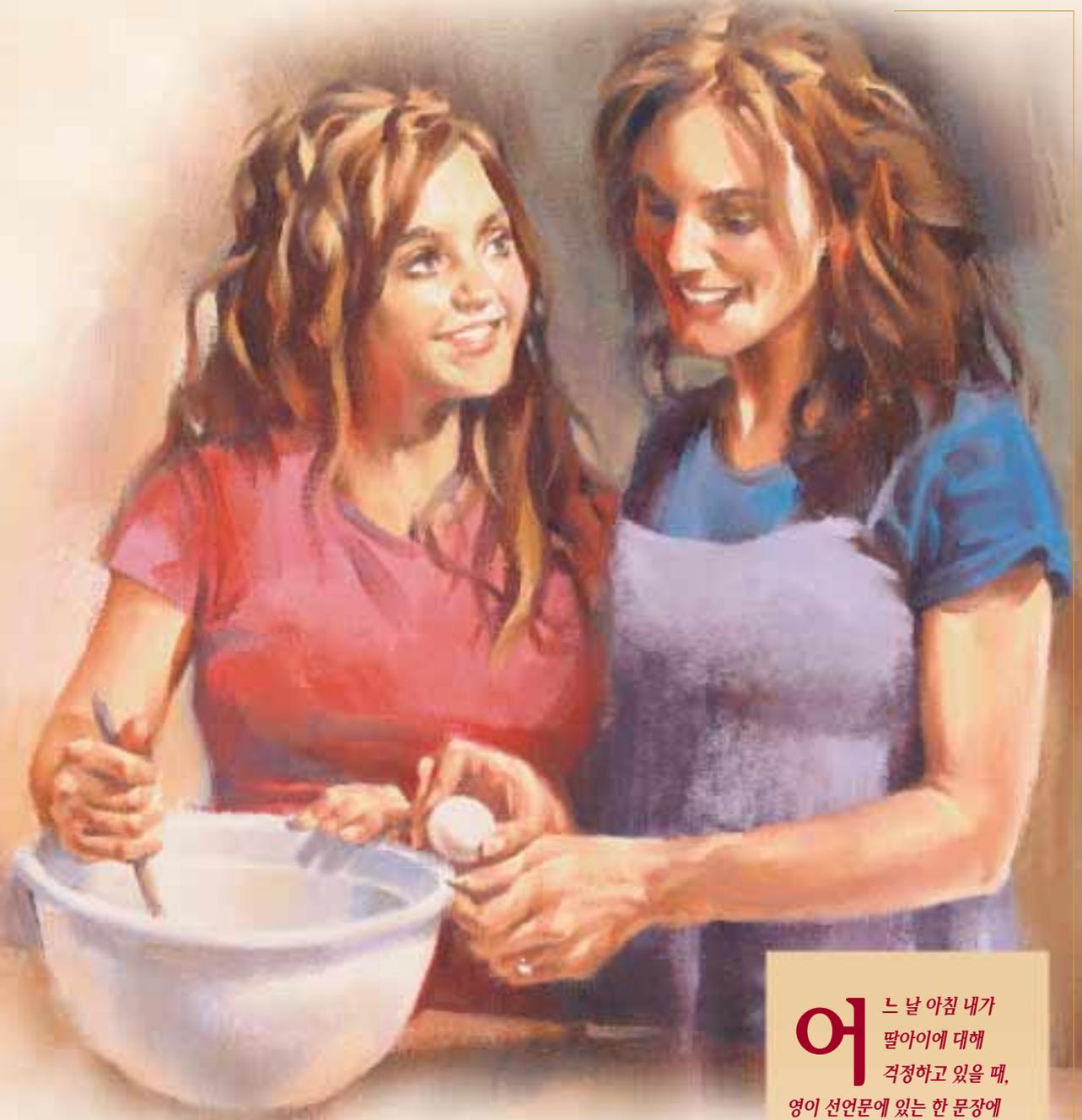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선언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마침내 연차 대회 특집호가 오자 나는 선언문을 몇 번이고 거듭해 읽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 나는 그 말씀들을 속속들이 이해하여 그것이 영원히 내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다. 그때 나는 그것을

외워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나는 40대 중반이었으며 암기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거듭해서 다음과 같은 속삭임을 느꼈다. “선언문을 외워라. 선언문을 외워라! 선언문을 외워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언문 사본을 가지고 다녔다. 면도를 하면서도 외웠다. 대학교로 걸어가면서도 외웠다. 운동을 하면서도 외웠다. 잠들기 전 머릿속에 맴도는 마지막 말들과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말들은 선언문의 말들이었다. 외우는 데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우는 과정은 힘들 정도로 더뎠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나는 선언문 전체를 외울 수 있었다.

선언문을 적용함

다 외우고 나자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선언문을 여러 번 암송하곤 했다. 내가 암송하는 동안 영은 특정한 단어나



어느 날 아침 내가 딸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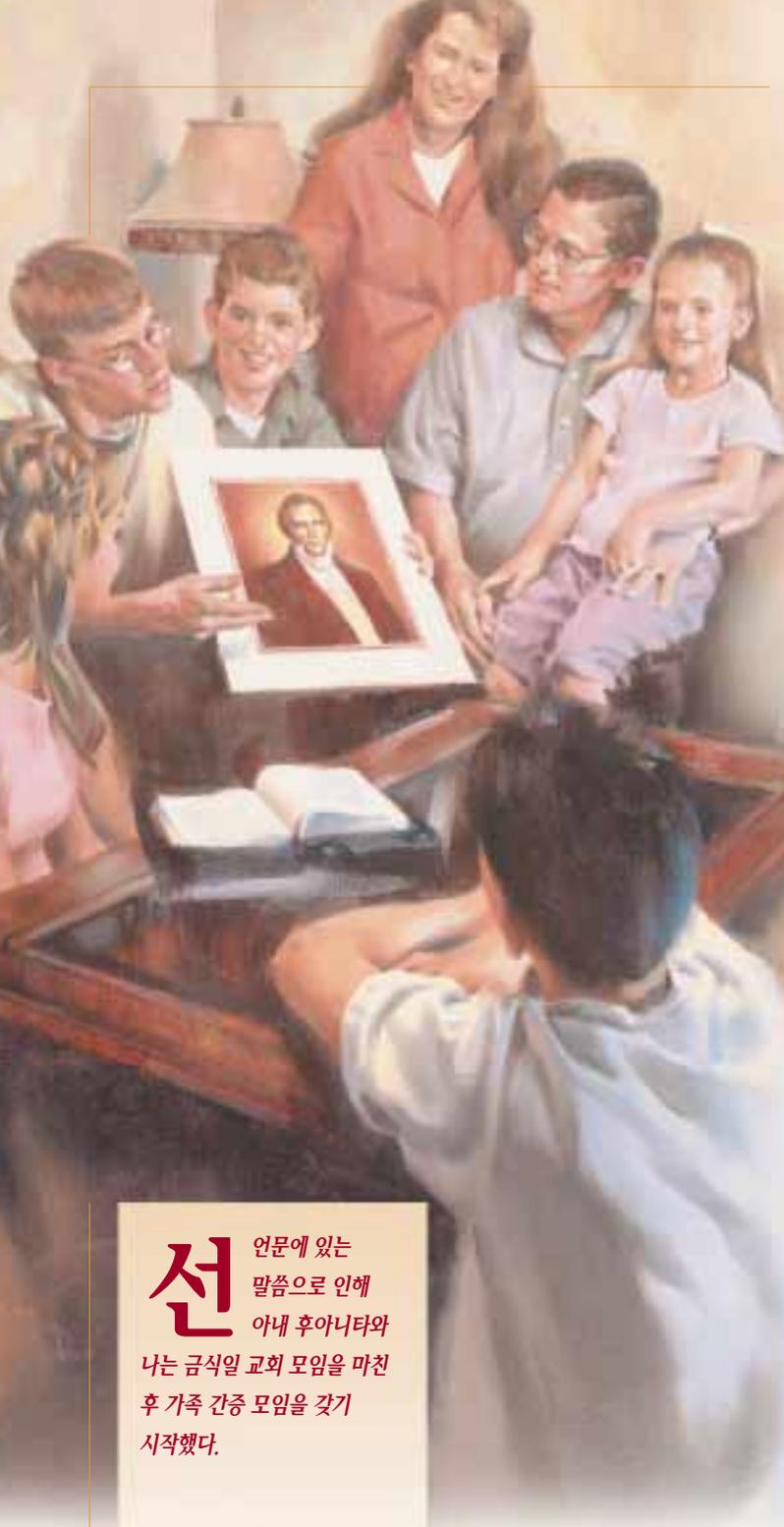
영이 선언문에 있는 한 문장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나는 임신 중인 내 여동생에게 딸아이를 보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장을 강조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구절들에 대해 생각하면, 그 구절들은 우리 가족과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생각들을 속삭여 주곤 했다.

예를 들어, 나는 지난 여름 십대의 딸아이가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딸은 내가 말한 것들을 무시하고 내게서 더 멀어졌다. 어느 날 아침 조깅을 하면서 선언문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영이 일곱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나는 조깅 속도를 즐겼고 머리 속에 여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현재 일곱 번째 아이의 산달이 다 되어 있었다. 내가 받은 느낌은 바로 우리가

친척으로서 그녀에게 즉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비행기 표를 사 주면서 고모 집에 가서 도움을 드리며 일주일 정도 지내 달라고 부탁했다.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딸아이는 낮에는 내 동생의 가족을 도우면서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선 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
아내 후아니타와
나는 금식일 교회 모임을 마친
후 가족 간증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잠든 후에는 내 동생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생은 내가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내 딸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십대 시절에 내린 결정이 어떻게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가져다 주었는지 딸에게 말해 주었다.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축복해 주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내 동생, 동생의 가족, 내 딸, 그리고 나는 모두 선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이번 여행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또 한번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라는 말씀으로 인해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과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선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 아내 후아니타와 나는 금식일 교회 모임을 마친 후 가족 간증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번째 모임은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녀들 중 누구도 그 모임에 별로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몇몇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으며, 막내는 “언제 끝나요?”하고 몇 번이나 물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 나갔으며 몇 달이 지나자 불평이 그쳤고 좀 더 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가족 간증 모임은 거룩한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도록”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되풀이되는 어떤 형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선언문에 있는 말씀을 자주 살펴보자 그 말씀은 영이 아내와 내게 가족을 전진시키게 하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길이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영감이 제시한 예만큼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아빠랑 딸의 데이트에 한나를 데려간다”, “오늘 밤에는 후아니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혹은 “에밀리에게 더욱 귀 기울여 듣는다”, “세스를 좀더 자주 재운다” 등과 같은 아이디어로 떠올랐다. 그러나 수백 가지 작은 지침들이 모여 훨씬 나은 가족 생활을 하도록 해 주었다.

역경 속에서의 위안

2001년, 후아니타는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며 앞으로 5년밖에 더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50퍼센트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이지만 매우 힘든 화학 요법, 수술, 그리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8주간의 메스꺼운 화학 요법 후에도 커다란 종양이 전혀 줄어들지 않자 몹시 낙담했다. 이 시련의 기간 동안 나는 내가

느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조깅을 하면서 최대한 큰 소리로 선언문을 암송했다. 그것은 내게 위안이 되었다.

하루는 조깅을 하면서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말에 이르렀을 때, 나는 멈추어 섰다. 머릿속에 한 가지 느낌이 떠오르며 나는 평화를 느꼈다. 그날은 금식일 전 토요일이었는데,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학 요법이 효과가 있도록 후아니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우리는 참으로 놀랄 만한 지원을 받았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까지도 금식과 기도의 강력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호주, 일본, 하와이, 솔트레이크, 보스톤, 벨기에 및 남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후아니타의 이름을 성전 기도 명단에 적어 넣었다. 결과는 기적적이었다. 우리의 기분과 신앙이 즉시 향상되었다. 그 후 4주 간 치료를 받는 동안 종양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 후아니타는 치료를 마쳤으며, 걱정할 정도의 암은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시련이 끝나거나 선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안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2004년 초, 후아니타의 암이 재발했는데 이번에는 폐암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망연자실했다. 의사는 몹시 심각한 목소리로 가능한 한 암을 제압하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가능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다. 처음에 나는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고 희망을 잃었다. 후아니타와 나는 의로운 소망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함께 선교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강화해 주고자 한 손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한번 선언문을 읽어 보았으며 이번에는 누군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눈에 띄도록 섬광을 비추는 것 같았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지만 이

말씀은 후아니타가 기적적인 축복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었다.

초점의 변화

우리는 약 육 개월간 비교적 평범하고 희망에 찬 생활을 했지만, 그 후 암은 눈에 띄게 진행되어 갔다. 후아니타는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거의 끊임없이 불편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도 그녀가 호흡하는 것을 힘들게 했다. 상황이 줄곧 나빠지지만 하고 전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후아니타가 오래 더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랐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선언문에 있는 말씀이 영감과 위안을 주었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나의

이해력은 많은 눈물을 통해 넓어져서 후아니타가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원의 계획으로 인해, 후아니타는 이 세상을 떠나 그녀의 아버지, 먼저 죽은 우리의 딸, 그리고 구주에 의해 환영받는 아름다운 곳으로 갈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후아니타는 고침을 받고 부활할 때에 암과 다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육신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영원을 통해 그들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기적이었다.

나는 또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녀의 지혜를 전해 주기 위해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물리적인 기적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고, 그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후아니타에게 최대한 많이 배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더욱 잘 준비해야 했다. 가족 간증 모임에서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강하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줄] …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표현했으며 그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다음 우리는 행동에 착수했다.

후아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적었으며 나도 나의 간증을 적었다. 우리는 간증을 인쇄해서 우리 사진과 함께 자녀들의 경전에 맞는 크기로 코팅했다. 후아니타는 각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격려와 권고를 전해 주는 장문의 편지를 자필로 썼다. 우리는 후아니타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찬송가, 초등학교 노래, 그리고 어린이 자장가를 녹음하여 자녀 한 명 한 명과 미래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CD를 만들었다. 우리는 또한 성전에 갈 때,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날 때, 결혼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녹음했다. 후아니타는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을 위해 코비늘로 아기 이불과 턱받이를 땀다. 우리 삶은 이제 중심이 있었고 활동으로 가득했으며 영에게 큰 위안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선언문을 통해 온 영감의 결과였다.

“저도요”

우리 자녀들 모두 후아니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곁에 있었으며 각자 그녀와 함께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후아니타는 숨을 거두기 10분 전까지 정신이 깨어 있었고 우리와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으며 그녀는 스페인어로 “로 미스모(Lo mismo)”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도”라는 뜻이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의 임종은 감미로웠다.

10년 전 그 토요일 저녁 처음으로 그 선언문을 들은 이후로, 나는 나와 내 가족에게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수많은 축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가장 생활의 큰 기쁨과 행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나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오늘날의 가족들을 위한 영감 받은 말씀이며, 진지하게 그것을 연구한다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신성한 도움의 창문이 열리리라는 사실을 영을 통해 알고 있다. ■

이 제프리 힐은 유타 주 오펜 캐년뷰 스테이크 캐년뷰 제5와드 회원이다.

발밑의 두 아이

아이다 엘 에빙

어느 날 무척 비생산적인 하루를 마치며, 나는 늘 발밑에서 아장거리는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언니 트레이사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언니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들이 세 명 있었지만, 늘 명랑하고 차분했다. 언니는 나를 딱하게 여겼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작은 이동 주택(trailer)에서 이사한 직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오른다고 했다.

언니는 좀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아이들이 부엌 싱크대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장난감 성을 쌓고,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더 이상 그녀가 개고 있는 빨래더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그러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엄마의 다리 주변에서 마치 착륙 신호를 기다리는 비행기처럼 빙글빙글 맴돌며 놀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마가복음 10장 13~14절과 16절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경전 구절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언니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그 구절들을 읽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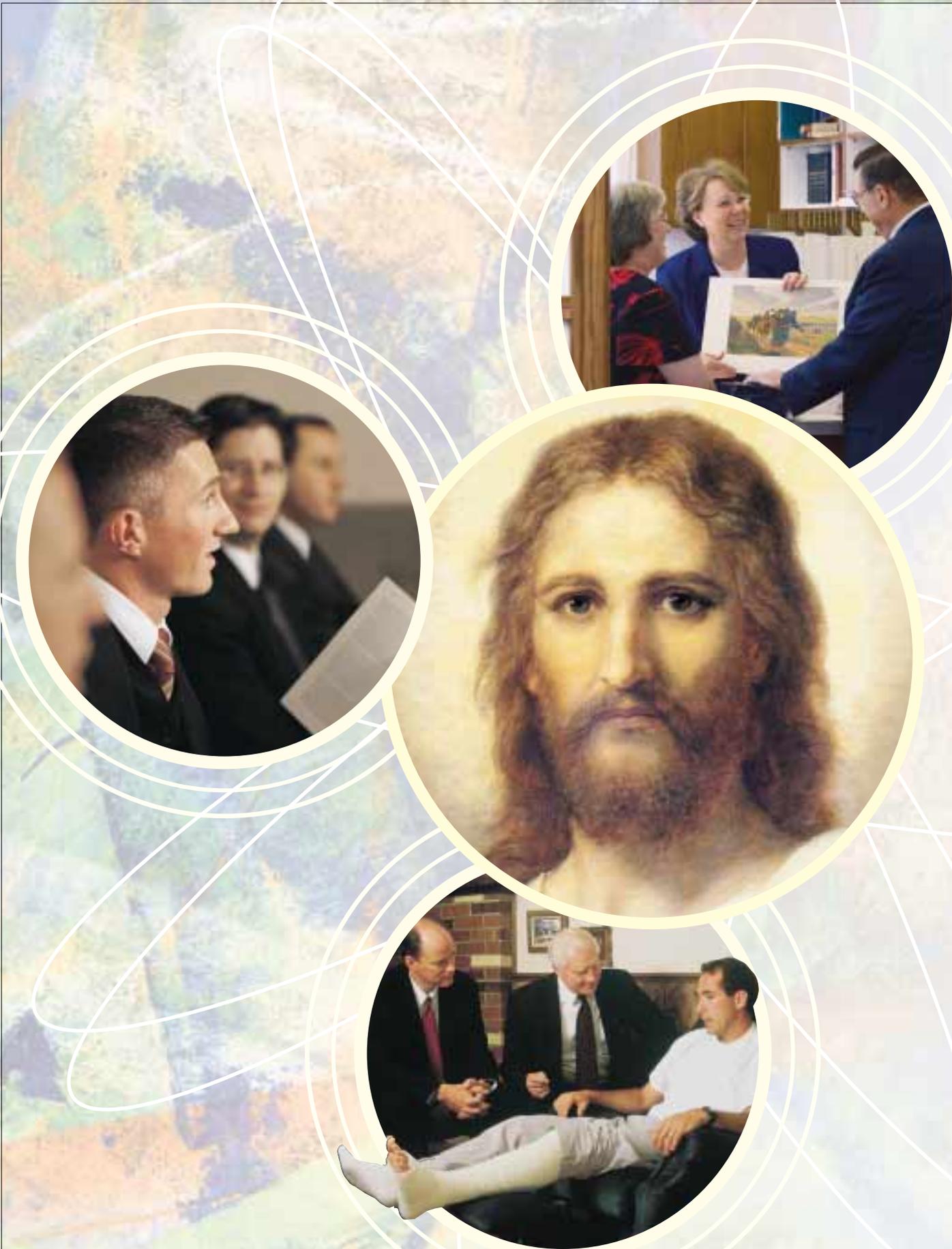
나는 어린 아이들과의 이 일이 있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분명 피곤하거나 성가시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안아 올려 축복해 주셨다.

나는 이 사심 없는 사랑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내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밀어젖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빨래와

설거지가 쌓여 있고 청구서를 내야 하고 잠을 너무 적게 잤다고 할지라도 나는 잠시 멈추어 아이들을 안아 주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언니가 내게 말해주려고 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팔에 안고 있으면 더 이상 거지적거리지 않을 것이다. ■

아이다 엘 에빙은 포트 월턴 비치 플로리다 스테이크 크레스트뷰 와드 회원이다.





독신과 기혼자들

신앙 안에서 함께함



캐슬린 루벡 피터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후안 포르투나토는 와드의 관심 있는 회원들을 위해 영어 수업을 한다. “저는 각 반원과 함께 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타이완 타이페이의 셸리 선이 새로운 와드에

들어오자, 감독은 주일학교 복음 원리반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주었다. “저는 수업을 듣는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수잔 버클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힐튼헤드에 정착하고 그곳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 직원은 수잔에게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물었으며 그녀는 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것이며 자신들을 도와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라고 수잔은 말한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누가 독신이었을까? 누가 기혼자였을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존할 때 올 수 있는 기쁨이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둔다. 그는 독신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 내에서 회원들이 여러 부류와 그룹으로 나뉘는 경향에 대해 다소 우려합니다. ... 여러분은 남성과 여성들이며, 신권 소유자들이며, 상호부조회 역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으로 인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¹

독신이든 기혼자든, 후기 성도는 구주의 사랑이 지닌 단합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 신, 영인(聖靈)의 영감, 웨일스 루터인 사, 개교, 신진 출향, 스티브 번디스, 로버트 웨이시, 크레이그 데이먼드 및 에투 루이아, 모델이 포즈를 취함.



**무엇이 우리를
단합하게 하는가?
우리의 간증**

십대 이후로 여러 번
선교사들과 마주했던 저는
34살의 나이에 진리를 보고
인식하며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소년, 시현, 그리고 금판에
관한 이야기를 믿기에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신의 확신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선지자의 악의 없는
순수함과 커다란 소망
덕분에 구주의 참된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호주 시드니의 마리안느 립스

모든 사람은 나이, 결혼 여부, 건강, 가난, 또
심지어는 명성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랑의 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 되도록 해 준다.

성도로서 함께 일함

와드나 지부 회원이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와드나
지부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타이완 신추에 있는 종교교육원에서는 기혼
부부와 독신들이 함께 모인다. 종교교육원에서
지안방 리는 이렇게 말한다. “제게는 일요일 교회
모임 이외에도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들이 서로 알게 되고 생각을
나누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전에 리 형제는 다른 와드 회원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에 대해
염려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드와 와드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 사랑,
또는 우정을 받기만 기다리지 않고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크리스틴 아모신 케이즌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새로운 와드에 갔다. 한 친절한
자매가 그들을 다른 청년 독신 성인들, 상호부조회
회장, 그리고 감독에게 소개했다. 크리스틴과
그녀의 친구는 성찬식 시간에 일어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환영받는다고 느꼈다.

슬로베니아 첼레의 나타샤 코클은 이렇게
말한다. “지부가 저를 처음 맞아 주었을 때, 저는
모두들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졌는지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나 본 사람이 다음 번에
저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팔을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청년 독신

성인 칼라 마르티네즈는 새로운 와드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칼라는
이전에도 가족과 함께 여러 번 이사를 했고,
그들에게 있어 생활은 늘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와드의 어떤 자매가 그녀와 우정을 쌓기
시작했다.

“알다니는 저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으며 부모님과 제가 사는 수수한 방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 즉 진실한 사랑을 주었습니다.”라고 칼라는
말한다.

한 회원은 후안 포르투나토가 새로운 와드의
사람들과 친해지도록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해 주었다. “그녀는 실제로
스테이크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된 것처럼, 그룹에 속해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라고 포르투나토 형제는 말한다.

독신들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 줌

유타 주 프로보의 조이스 배걸리는 자신이
독신이자 지상에 있는 주님 왕국의 회원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이 기혼자인 교회에서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결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새로운 와드로 이사하면 집행 서기를
찾아 감독과의 약속을 요청하고, 기록 서기가
그녀의 회원 기록 카드를 요청하는지 확인한다.

“저는 상호부조회 회장님께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 교육 지명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금식 주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표현합니다. 저는 와드의 모든 모임에 참석합니다.
아주 가끔 모임에서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평소 일요일에 그러는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시 모임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

원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줄리 길은 독신 및 기혼 자매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복음은 커다란 결속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독신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잊거나, 독신들은 다른 독신들과만 우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매는 제게 “자매님은 정말 어려워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두었을 뿐 저와 동갑이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을 결론짓곤 하지만, 서로 돕기 위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코트니 맥그리거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이후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했다. 참여를 위해 그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을 했다. “달리 부름을 받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습니다. 저는 자진해서 성찬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다른 방법으로는 것처럼 빨리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자진해서 성전

청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은 결혼했을 때나 독신이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친구는 어디서든 사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카트리나 영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저에게는 속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과에 참여하고 부름을 받아들이며, 방문 교육을 하고 건물 청소를 돕겠다고 나서며, 와드 회원들에게 차를 태워 주고 활동에 참석하고 매주 한 가족이나 개인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봉사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회원들을 보살핌

안벨리제 스코트는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의 새 와드로 최근



복음 안에서 포함됨

저는 청년 독신 성인 활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친구를 사귀고 데이트를 하고 언젠가 결혼을 하게 해 주는 참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연령층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젊거나 미혼이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으며 복음의 모든 면에서 포함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빅토리아의 할리 스미스

이사했다. 그외 몇몇의 새로운 연로한 미망인들 또한 그곳으로 이사했다. 아무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와드의 두 자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찬을 계획했고, 그때부터 자매들은 친구가 되었으며, 교회 모임에서 함께 앉고, 생일을 기념하고, 활동에 참석할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며,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돕는다.

“우리는 새로 오신 연로한 자매님들이 처음으로 상호부조회에 올 때 그들을 찾아 그들이 우리의 작은 그룹에서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며 즐길 수 있도록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습니다.”라고 스코트 자매는 말한다.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 중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감독이나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독신들이 와드나 지부에 더 잘 참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기꺼이 자신의 안전 지대를 떠나 솔선해서 교회의 독신이나 가족들,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리라 믿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타이완 카오슝의 슈웬은 말한다.

수잔 버클스는 몇몇 라틴 아메리카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참석했으며, 그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춤을 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은 원을 만들어 춤을 춤으로써 모두를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포함된 느낌을 받도록 차이점이 사라지게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구주에게 돌이킴

무엇이 성도들을 단합하게 하는가?

타이완 신추의 잉링 후양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구주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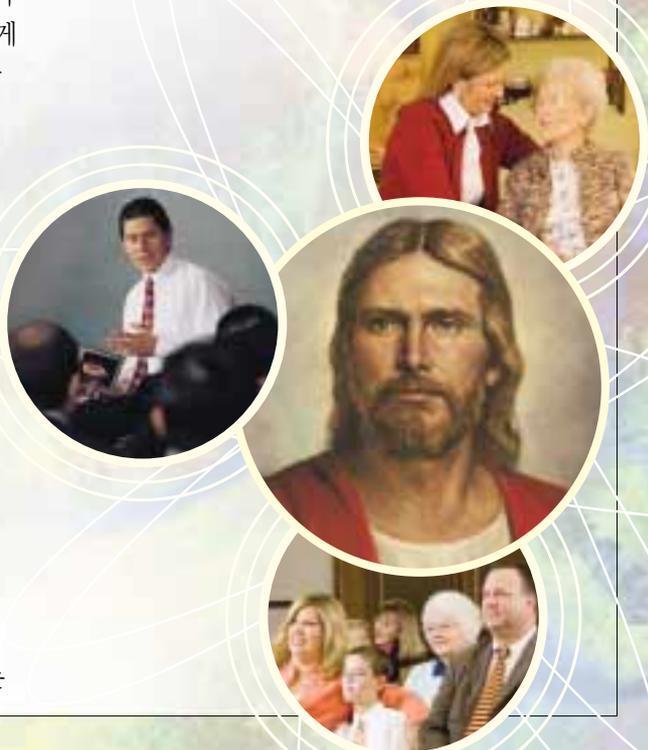
“독신들을 와드 또는 지부와 단합시켜 주는 것은 모든 회원들을 단합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구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께 오라고 권유하십니다. 모든 합당한 독신 회원들은 성전 축복을 포함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생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영원한 결혼을 포함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 주 코스타메사의 로저 보그는 말한다.

우정과 사랑이 공존할 때, 모든 연령층의 독신과 가족들은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 (모사이야서 18:21)보게 된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

캐슬린 루백 피터슨은 유타 주 노스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풋힐 와드의 회원이다.

주

1.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605쪽.



선교사 해임 접견

오펠리아 제이 우르타도

한 가지 특별한 대화가 나의 영적인 성장에 큰 축복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나는 선교부 회장님과 함께 선교 해임 접견을 가졌다. 회장님은 내가 집에 가면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는 내게 활동적으로 남고 싶다면 항상 교회 부름을 지녀야 하며, 교회 부름이 없을 경우 감독님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내게 준 또 다른 권고는 더욱더 강한 것이었다. 그는 내게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으려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으며, 성전 밖에서 결혼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 말씀은 내가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귀환 선교사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와드 및 지부 회원들이 우리에게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면 더욱 힘이 든다. 시간은 흐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종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통한 생각까지 들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성전에서 결혼하라는 현명한 권고를 주신 선교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는 현재 내가 그 결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기까지 선교 사업을

마친 후 10년이 흘렀다. 우리는 2000년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그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 무엇도 내가 주님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을 막을

나는 선교 사업이 끝났을 때 선교부 회장님께서 내게 주신 권고에 대해 늘 감사할 것이다.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으며, 나는 그 아이에게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줄 수 있었음에 기쁘다. 그 아이를 볼 때, 나는 선교부 회장님과 가졌던 대화의 영향을 본다. ■

오펠리아 제이 우르타도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 스테이크 라스 델리시아스 와드의 회원이다.



식품이나 십일조냐?

살렛 아놀드

화 장품 회사에서의 첫 직장을 시작한 지 일 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이혼한 상태였고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다. 12월에 회사는 각 판매원에게 성탄절기 동안 팔아야 할 크리스마스 상품이 들어 있는 커다란 상자를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월급에서 상당한 금액을 제했음을 뜻했다. 한 달 경비와 십일조를 떼어 놓자, 세 명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남았다. 그러나 단 일주일 동안뿐이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한 달 동안의 식료품과 내가 일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연료를 충당해야 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왔을 때, 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십일조를 낸다면 가족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십일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실한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십일조를 내도록 권고했다. 그는 내가 충실하게 그 일을 할 경우,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했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예전부터 충실함과 믿음직함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나는 농담 삼아 말했다. “식품을 사지 못하게 되면, 형제님께 갈게요.”

그러나 나는 그를 믿었으며 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십일조를 냈다.

월초에 크리스마스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중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월말 무렵, 나는 모든 크리스마스 제품과 여러 달 동안 재고로 남아 있던 상품까지 전부 판 상태였다. 상품이 더 있었다면 아마 그것도 팔 수 있었을 것이다.

가정 복음 교사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주님은 정말로 하늘의 창문을 열어 주셨다. 우리는 그달 필요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 후에 나는 동료들에게 크리스마스 판매 실적이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 당시 경기 침체 때문에 화장품 업계 매출이 하락했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권고를 주신 가정 복음 교사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그

이후로 나는 십일조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십일조를 내기에는 너무 적은 돈을 가졌다고 느끼는 자매들을 위해 방문 교육을 할 때, 나는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나의 간증을 나눈다. ■

살렛 아놀드는 독일 도르트문트 스테이크 에센 와드의 회원이다.

월

급에서 상당한 금액이

제해졌기 때문에 겨우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돈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의 책은 참된 책임입니다

앤 큐

선 교사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날은 언제까지나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수녀원에서 칠 년을 보냈으며, 그곳의 생활 방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지만, 합창단과 함께 일하고 종교 강의를 하면서 교회 모임에 참여했다.

사실 내게는 가까호호하는 선교사들과는 종교적인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 경전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을 갖고 토론하면 다툼의 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 방문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방문이 있기 몇 달 전 나는 어떤 사람이 남미의 신화와 관련된 “몰몬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이러한 책이 내가 이미 공부했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줄 수도 있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어졌다. 나는 조만간 몰몬 책을 읽고 그 책의 신화적 타당성을 연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를 위해 그것을 머릿속에 간직해 두었다.

그날 문을 열어 주면서, 나는 책이나 신화적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어린 아기를 돌보고 매우 활기찬 세 살짜리 아이를 쫓아다니는 데

거의 모든 힘을 쓰며 바쁘게 생활하는 젊은 어머니였다. 그러나 문으로



다가가면서 내 머릿속은 일종의 시현, 즉 아브라함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던 날 천막 문을 향해 다가가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옆으로 써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리란 것을 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기 성도 선교사라는 명찰을 단 두 명의 젊은 청년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혼란스러웠다. “시현”만 아니었다면, 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을 것이다. 대신, 나는 그들이 나에게 전해 줄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출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물었다. 물론 나는 믿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현대식 정장을 입은 열다섯 명의 사진을 들며 보여 주면서 현재 지상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었다.

선 교사들이 다시 왔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의 책은 참된 책임이에요!”

나는 직분에 따른 복장을 걸친 성직자가

있는 종교에서 성장했으며, 그 복장은 분명 정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관대하게도 그 말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는 “시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몰몬” 책에 대해 아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해 물었다.

“혹시 어떤 책을 갖고 있지 않나요?”하고 내가 물었다. 그들은 그렇다고 했다. 나는 그 책을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찌면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올 때 그 책을 한 권 갖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종교적인

“토론”에는 응하지 않고, 그들이 단순히 책을 갖다 주고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드디어 그 책을 받았을 때, 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내가 가진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해 그들이 돌아온다는 데 이번에도 큰 책임감 없이 동의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이 조용해진 후, 나는 책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책에서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조금 후 경이, 충격, 기쁨, 그리고 혼란에 휩싸여 남편에게 내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렸다. “이 책은 경전이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이 책이 기록된 신화나 고대 역사도 아니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을 정도로 경전을 충분히 연구했으며 세계의 신성한 문헌도 충분히 읽었다. 그 책은 나에게 영적인 음성으로 말했고, 나는 각주를 읽고 나의 흥미를 끈 주제에 대해 찾아보면서 수년간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책은 의심할 바 없이 내가 손에 들었던 책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었고, 어느 쪽을 퍼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으며 교화시켜 주었다.

그 젊은 선교사들이 약속대로 다시 왔을 때 나는 집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다. “여러분의 책은 참된 책이예요!” 나는 그 책이 영똥한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것이 그들 교회의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그 시점에서 나는 그들이 가진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개월 동안 공부한 후, 나는 이 놀라운 책이 내 기대를 초월한 빛과 지식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충만한 복음, 신권의 권능, 그리고 정장을 입은 그 열다섯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다시 존재함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해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

앤 큐는 위스콘신 주 매디슨 스테이크 매디슨 제4와드의 회원이다.

복음 안에서 성장함

더글라스 자르도

아 내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가르쳤지만, 어느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의 삶은 1997년 3월 초에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변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저녁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있을 때 집으로 와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영적인 메시지뿐 아니라 물몬경이라는 선물도 가져왔다.

그 후 몇 주 동안,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계명도 알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권유를 받았다. 침례는 교회와 연분을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었다.

아내와 나는 1997년 3월 26일에 침례 받았다. 침례를 받은 지 3개월이 되자 감독님은 나를 주일학교 회장으로 불렀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받아들여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감독님은 이 도전을 받아들여도도록 나를 설득했으며 공부할 주일학교 교재를 주셨다.

두 달 후, 복음 교리반 교사가 주중에 내게 전화해 일요일에 교리와 성약 98편에 관한 공과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대신 공과를 가르칠 수 있는 세 명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모두 선약이 있었다.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공과를 가르치기 원하신다고 느꼈다.

나는 교리와 성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감독님의 1보좌, 와드 자료실, 그리고 공과 교재의 도움으로 공과를 준비할 수 있었다.

나는 복음에 대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와드 회원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그분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 일요일,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평안과 힘을 달라고 간구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형제 자매들은 미소를 지었고 수용력을 보였으며 나를

도와주었다. 모두 주의 깊게 참여했으며, 나는 그 중요한 공과를 나누도록 주님의 영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느꼈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만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도움과 다른 회원들의 도움으로 말이다.

8개월 후, 나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나의 아들 앤더슨은 목에 피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세 명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그러나

항생제를 섭취한 후에도 별 차도가 없었다.

나는 복음에 대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와드 회원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긴장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신권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고 그에게 신권 축복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는 축복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약을 통해 염증이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그는 마침내 내게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5일 후 앤더슨은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목이 완전히 나았던 것이었다.

침례 일주년이 다가올 즈음, 나는 와드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부름을 받아들였다. 아내는 상호부조회 제2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1998년 4월, 우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성약을 맺은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인봉을 받은 지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이 부름 받고 지지 받은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우리 감독님이 스테이크 회장단에 부름을 받았다. 놀랍게도 나는 우리 와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나는 깜짝 놀랐고 자신이 없었지만 부름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며 내가 감독의 부름을 수행하도록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감독으로서 나는 우리가 이 지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견자 및 계시자를 통해 복음을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아내와 내가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그분께서는 이

생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름을 수행하도록 강화해 주시며, 언젠가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받아들이시리라는 것을 안다. ■

더글라스 자르도는 브라질 상파울루 산토아마로 스테이크 인디아노폴리스 와드의 회원이다.



완벽한 복귀

반원들 중 한 명이 상호
항상 모임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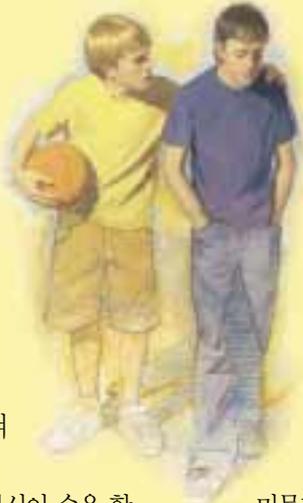
리차드 디 호크스

와 드 청남 지도자로 봉사하던 시절 어느
날 밤, 나는 교회에 도착한 후 청남들이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그곳에 있었다는 점은 의외였다.
데이비드는 와드에서 비교적
새로운 회원이었으며 그는 평소에
교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청남 활동에 참석했다는
것은 큰 발전이었다.

데이비드는 주의를 끌지 않고
조용히 무리에 끼어 들어갔다.
적어도 농구공이 링 테두리에서 튕겨
나와 그를 향해 곧장 나아갈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공을 받고 자신이 슛을 할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공을 몇 번
드리블하다가 링을 향해 서투른 자세로 슛을 했다.
공은 링 아래 쪽에 맞고 튕겨 나와 그에게 다시
돌진해 나갔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린 그의
팔에 맞았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데이비드도
웃었다.

그리고 공은 다른 소년의 손에 들어갔고 그는
데이비드의 어색한 슛을 비웃듯 흉내냈다.
야까처럼 대부분의 소년들이 웃었지만, 데이비드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그는 제사 정원회와 함께
하기 위해 왔는데,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출구 쪽으로 가더니 나가 버렸다.
데이비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랐지만 그를 붙잡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데이비드가 돌아올 용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며 그의 뒤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나는 데이비드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뜻밖에도 제사들 중 한
명인 데니스가 나를 앞질러 달려가
데이비드에게 팔을 두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데이비드의 마음이 풀어져서
머뭇거리면서도 가까이 돌아서서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보면 그가 영감을 받았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불과 몇 주가 안 되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다수의 청남을 포함한 우리 와드 회원 중 몇 명이
다가오는 연극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
제사인 토드는 연기자 중 한 명이었다. 연습 도중에
누군가가 토드의 연기를 비웃듯 흉내냈다. 그는
기분이 상했고, 풀죽은 모습으로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또 시작이군”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뒤를 쫓아가서 상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돌아오라고
격려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었다.

이번에 황급히 나를 제치고 달려
나간 사람은 데니스가 아니라
데이비드였다. 불과 몇 주 전에는
그가 바로 풀이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토드에게 달려가 어깨에
팔을 두르고 돌아가자고
간청했다. 토드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 잠시 후 두
소년은 무대 위에 나란히
섰다. 데이비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붙드는 데
성공했다.

나는 아론 신권이
행사된 이 사례를 보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1926~2004)의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는
자신의 체운을 재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격려, 친절, 칭찬 등의 필요한 치료를 베풀 수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열병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는 처진 손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낙담한
사람들의 것입니다.”(“Swallowed Up in the Will of the
Father”, *Ensign*, 1995년 11월, 23쪽)

데이비드의 손은 처진 손이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보인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 이번에는 데이비드의 손이 다른 손을
일으켜 세운 손이 되었다. ■

리차드 디 호크는 사우스조던 유타 크로싱 스테이크 컨츄리 크로싱 제2와드의
회원이다.



질 의 응 답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괴롭히고 놀립니다.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

주님의 제자들은 종종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니파이, 모로나이, 또한 조셉 스미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구주 자신께서도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이사야 53:3) 오늘날에도 후기 성도들은 때때로 박해를 당합니다.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괴롭힘을 무시하거나 형제님을 놀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형제님의 와드나 지부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들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 후 그 아이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라면 괴롭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님이 앞으로 한동안 그 아이들과 마주쳐야 한다면, 그들의 괴롭힘에 대해 아이들과

괴롭힘을 무시하지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신앙을 옹호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하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인내심을 가지며, 관용을 보이십시오.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제3니파이 12:10)

대화해 보는 것은 어떻게 고려해 보십시오. 교회 회원들을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들은 “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라든가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할 경우, 형제님은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형제님이 술을 마시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며, 마시지 않아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형제님이 괴롭힘을 당할 때, 형제님의 반응에 있어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그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화내지 않았습니까. 격려가 필요할 때에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20~23에서 주님의 모범에 대해 주신 가르침을 읽도록 하십시오.

이 시련을 겪는 동안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형제님의 신앙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삶은 주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천하거나 허울만 있거나 불쾌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짊어져 온 그분의 이름이라는 상징을 더욱 빛나게 갖고 닦지 않고서는 선하고 겸손하고 관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표현, 즉 ...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간증의 선언으로서 우리의 삶을 상징으로 삼아야 합니다.”(“우리 신앙의 상징”,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6쪽)

독자들의 대답



제가 형제님이라면,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굴욕을 견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모범이 되고

연행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페오파야키 엘, 15세, 통가 누쿠알로파

이 상황을 모범을 통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인도하여

그분 안에서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앨마서 17:11 참조)

리어 엔, 19세, 필리핀 레가스피



형제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말로 또는 신체적으로 위협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주님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견뎌던 조롱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님이 졸업해서 학교 정문을 걸어 나가면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표준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높이 들고 강한 간증을 가지고 걸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사무엘 비, 19세,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 받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혼란스럽거나 두려워지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굳건히 서야 하며 올바른 것의 표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페차드 에스, 18세, 태국 콘캔



형제님의 기분을 압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제가 욕을 한다든지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고 “너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외로웠지만,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마음 착한 여자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제가 교회 회원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 옵니다.

아페차드 에스, 18세, 태국 콘캔

에스터 케이, 11세, 브라질 이타티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원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괴롭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과 사랑의 모범이 되고, 형제님의 신앙이 그들의 비난과 학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십시오. 저는 이를 실천해 보았고 저의 반 아이들이 교회 회원인 저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압니다.

카렌 피, 18세, 파라과이 아순시온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에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애를 통해 그는 질병, 사고, 궁핍, 오해, 거짓 고소 및 심한 박해 등과 같은 그를 낙담케 하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 우리는 각자 좀더 구주처럼 되기 위해 어떤 경험들을 겪어야 합니다. 필멸이라는 학교에서 종종 고통과 시련이 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축복하며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신앙은 시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줌”,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7쪽.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저를 놀리며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신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왔고, 이제 그들은 저를 지지해 줍니다.

리케이 알, 14세,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저는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괴롭힘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복음과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형제님의 도덕과 표준을 옹호하면, 사람들은 형제님을 조롱함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형제님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형제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켈리 이, 18세, 미국 유타 주 웨스트조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답을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실어도 좋다는 부모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5/06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대답은 2006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교회 친구 중 한 명이 몇 가지 복음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친구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구주의
부활을 기억하면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부 활절 아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즉 사망을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잔인한 대못이 그분의 떨리는 살을 찢고 갈보리에 십자가가 세워지자 그분을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생명을 잃은 상처 난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판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은 결국 죽을 것이나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의 날이라 알려진 새 날이 왔습니다. 슬픔에 젖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 문을 막은 돌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요한복음 20:2)

그분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분께 고침을 받은 마리아에게 그분은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 즉 일시에 500명까지 되는 형제들이

달려왔습니다.(고린도전서 15:16 참조)

사도들은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도마는 그분의 상처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28)

이 이야기의 진실을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상 이 사건만큼 분명히 입증된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졌으며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두 권의 성스러운 경전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 성신의 권세로 행한 증거와 간증이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과 타당성을 확인해 줍니다.

깊은 슬픔의 시간에도 그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한 말씀에서 소망과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그분은 그분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신 우리의 왕이시자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그분은 찬란하고 영화롭게 살아 계십니다. ●

1996년 4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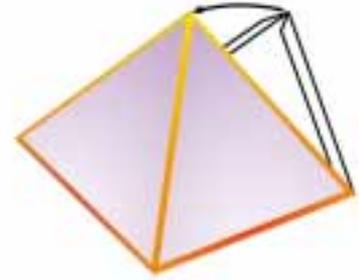
사례

조쉬가 누군가에 대해 심술궂은 말을 합니다. 조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니는 자기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려 하지 않습니다. 제니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소년들이 누군가를 게임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리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합니다. 리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모로나이 7:41)

린다 매글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주머니칼을 꺼내 깨끗이 닦은 다음 손가락을 살살 긁어 가시의 끝을 잡아 뽑아냈다. 아버지의 손동작은 부드러웠지만 가시를 뽑을 때는 정말 아팠다. 손가락에 가시가 또 박혔을 때, 소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손가락이 감염되었다. 가시가 박힌 손가락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시를 뽑아내고 싶었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가시를 뽑아 주었다. 가시가 없어지자 손가락은 낫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언제나 고통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시해 버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잘못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슬프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회개는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을 주는 죄를 씻어내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음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후회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성신에게서 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우리가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비롯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도 해야 한다.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회개는 현재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주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활동

이 게임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친4쪽의 그림을 굵은 선을 따라 오린다. 점선을 따라 접어서 피라미드를 만든다. 탭 가장자리를 풀칠하거나 테이프를 붙여 피라미드 안쪽에 붙인다. 아래의 목록에서 한 가지 사례를 고른 다음 피라미드를 던진 후 여러분을 향한 피라미드의 면에 적혀 있는 회개의 단계를 사례에 나온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초등회 그림 3-3을 보여 준다.(전세 생활) 이 그림은 한 화가가 자신이 상상하는 천국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을 얻고 의를 선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계획을 발표하셨다. 모세서 4:1~4을 읽고 어린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발표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한다. 복음 그림 세트 240(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 칠판에 다음 사항을 열거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지구가 창조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기뻐 외쳤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다음 성구들을 순서 없이 적는다: 아브라함서 3:24~25; 욥기 38:7; 이터서 3:14; 요한계시록 12:7~9.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읽게 한 다음 각 성구들 위의 문장 중 하나와 짝짓게 한다.

2. 니파이후서 2:27을 읽고 토론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선과 악 중에서 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다음 그림 중 하나를 준다: 복음 그림 패킷 309(물몬의 샘에서 침례를 주는 엘마), 310(라모나이 왕의 양 떼를 지키는 암편), 311(땅 속에 칼을 파묻는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 각 이야기는 주님을 거역한 후 회개를 하고 돌아켜 주님을 섬긴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그룹이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림 뒤편에 있는 성구와 이야기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준비한 다음, 간단한 역할극을 통해 그것을 발표하도록 한다. 각 사람 또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 물어본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본다. ●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음

윌포드 우드럽은 소년 시절부터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었습니다. 26세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아무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형 아스몬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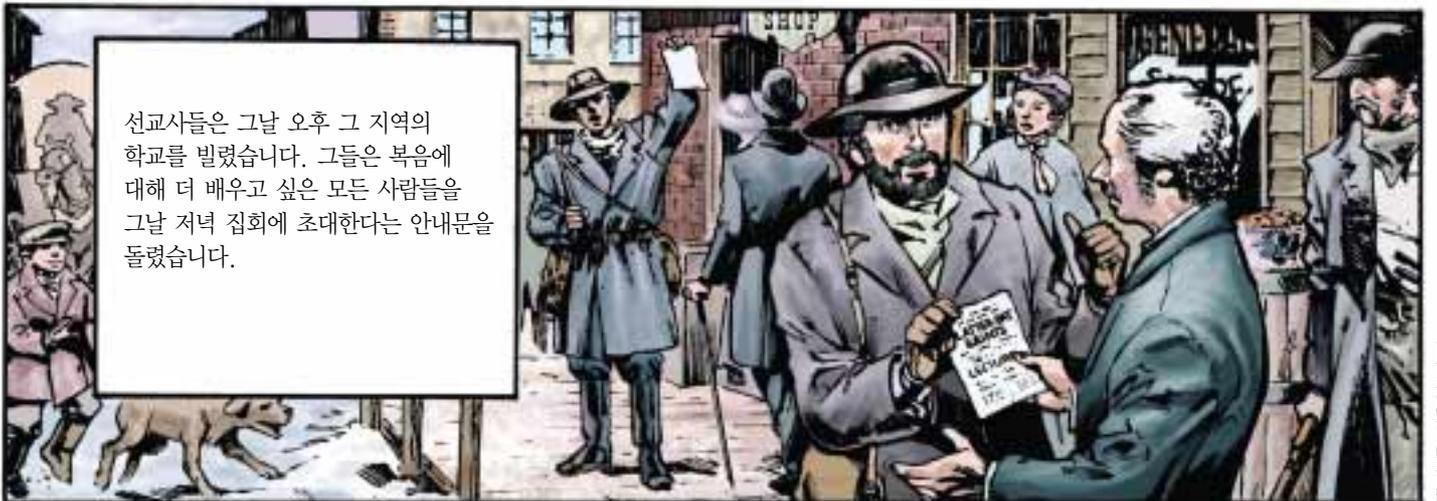
1833년 12월 29일, 두 명의 몰몬 선교사가 아스몬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와 윌포드는 밖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아스몬의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지금 집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꼭 더 듣고 싶어요.

선교사들은 그날 오후 그 지역의 학교를 빌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그날 저녁 집회에 초대한다는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월포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그의 형수가 집회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말머리를 돌려 학교로 가기 시작했고, 가는 동안 내내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지 알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월포드, 저녁 식사는요?

이 사람들은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몰라요! 가 봐야만 해요.



월포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아스몬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월포드는 빈 의자를 찾지 못해서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물문경의 신성한 진실성에 대해 분명하게 간증드립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지상에서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게 느껴져.

선교사들은 말씀을 마친 후, 모인 사람들 중 일어서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월포드는 즉시 일어나 선교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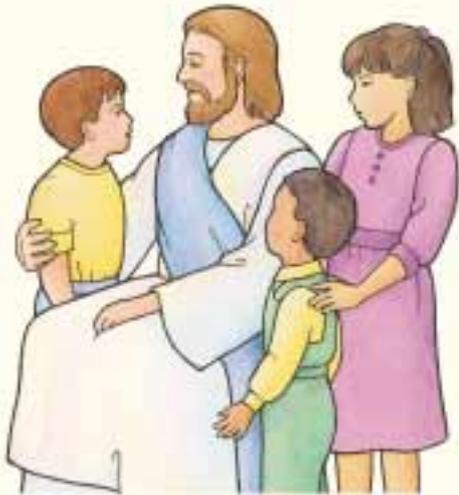
주님은 제게 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도록 권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후, 월포드와 그의 형 아스몬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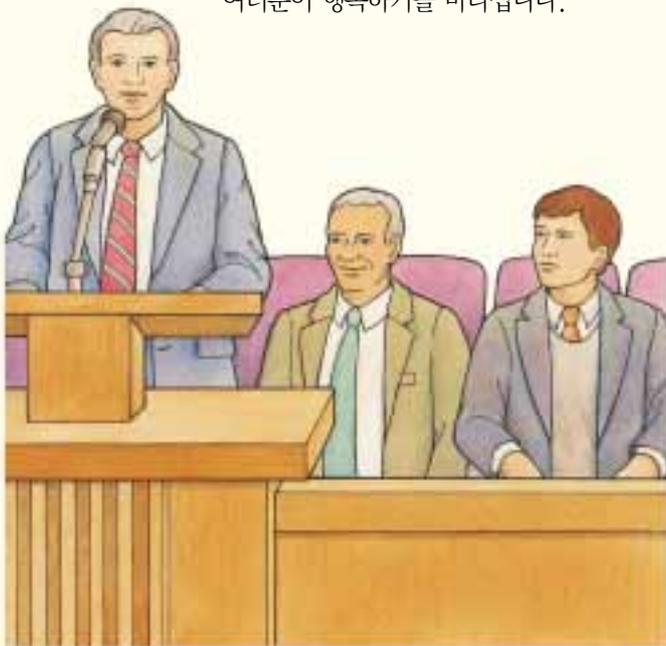
래온 알 하트슨 편집, Classic Stories from the Lives of Our Prophets(1971년), 106~108쪽과 수잔 애링턴 매드슨 저, The Lord Needed a Prophet(1990년), 64쪽을 각색함.

여러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교회와 신권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은 두 보좌의 도움을 받아 와드와 지부를 관리합니다. 이 세 분은 여러분의 참된 친구이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에 항상 보답하십시오.



교회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



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사람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합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은
침례 받은 회원들이 침례 성약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도 성찬을 취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회는 와드 또는 지부의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초등회 회장과 두 보좌들은 모임을 감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줍니다.



초등회 피아노 반주자와 음악 지도자는 초등회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지휘합니다. 복음 찬송가는 특별한 유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르면 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달 중에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모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등회 교사는 초등회
반에서 복음 공과를 가르칩니다.
초등회 교사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도움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테스 힐모
실화에 바탕을 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야고보서 1:27)

“도 요일 활동은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요리 시간입니다”라고 마샬

자매님은 광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신바람 난 환호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여자아이들이 오븐에서 갓 꺼낸 디저트,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두 시간 내내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겠지요. 저를 뺀 여자아이들 말이에요. 제게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가끔씩 만나는 아빠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나기는커녕, 걱정으로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분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꼭 깨물고 눈물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마샬 자매님은 저의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자매님은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랑 같이 와도 돼, 테스.” 자매님의 의도는 좋았지만, 단순한 그 몇 마디를 듣고 나자 저는 그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매님이 눈치 채시지 못하도록 저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바보 같은 활동에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샬 자매님의 특별 유의 사항이 필요 없는 가족, 즉 일요일마다 예배실 의자에 나란히 앉는 그런 가족에 속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제가 아기였을 때 엄마와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아빠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토요일 모임에 맞춰 마술처럼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려!” 저는 삼 년 전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래 제 자신에게 이 말을 적어도 백 번은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졌고,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침례, 초등학교 활동, 워드 사교 모임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 온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은 제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때때로 저는 조각 한 개가 없어진 퍼즐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땠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래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좋았어요”라고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요리 시간에 대해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엄마도 그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학교 공부, 집안일, 친구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토요일 활동에 대해서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언니가 전화기를 건네 주면서, “네 전화야”라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 테스. 에릭슨 형제야.” 에릭슨 형제님은 우리 가정



복음 교사였습니다. 형제님은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때때로 민트칩이나 체리 초콜릿맛 아이스크림을 담은 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는 종종 반짝이는 눈과 미소로 저를 웃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제게 왜 전화를 하셨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거나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에릭슨 형제님은

형제님의 목소리는 명랑하고 힘찼습니다. “내일 요리 시간에 같이 가도 되겠니?”

저는 숨을 죽이고 엄마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엄마 팔에 묻어 있는 비누거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에릭슨 형제님께 말했을 리는 없어. 엄마는 알지도 못했는걸.”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마살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게시판에 광고된 걸 봤어”, 하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

“아, 맞아요. 게시판이 있죠.”

“그래, 파티에 나 같은 늙은이를 데려갈 수 있겠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싶어서 그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가게 해 줄래?”

“그렇다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관찮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형제님을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에 가게 되어 새롭게 들뜬 마음은 그런 의문을 잇기에 충분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교회에 데려다 주셨을 때, 에릭슨 형제님이 선명한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미소를 보자 저는 안심했고 우리는 다른 아버지와 딸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집회소 주방에서 체리코블러(역주: 체리파이와 비슷한 디저트)와 손으로 직접 휘핑 크림을 만드는 법을 배우며 정말 재미있는

손을 높이 들어 저와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올 수 있게 해 줘서 고맙구나. 정말 재미있었어!” 저는 형제님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릭슨 형제님은 변함없이 저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그의 집에서 게임을 하는 날 여러 번 우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아버지와 딸을 위한 활동에 저와 함께 참여했고 제가 16세가 되자 그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의 첫 번째 진짜 일자리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을 때, 저는 에릭슨 형제님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인봉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일반적으로 신부의 아버지를 위해 준비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 복음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와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

테스 힐모는 유타 하일랜드 스테이크 하일랜드 제4와드의 회원이다.



“신권은 가정 복음 교사들의 봉사를 통해 모든 회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일회장단 제2보좌, “Father, Come Home”, *Ensign*, 1993년 5월호, 36쪽.

고요하고 작은 음성

경건하게 ♩ = 96-108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성신은 나

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시네 내가

옳은 일 행하면 어둔 밤에나 인도하고 보

호해 내 영혼에 빛을 주시리

들 어 보라 성신의 속삭임을

더 조용하게

들 어 보라 작은 음성을

아주 조용하게

작사 및 작곡: 메릴 브래드쇼, 1929~2000, © 1969 IRI

이 곡은 교회나 가정에서 입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교리와 성약 8:2~5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린지 엠

2005년 2월 6일 스테이크 대회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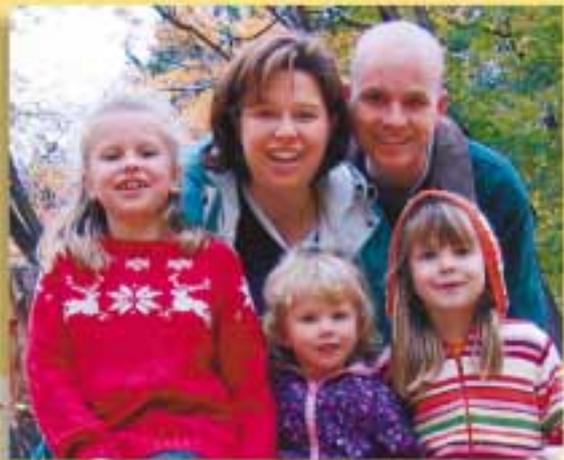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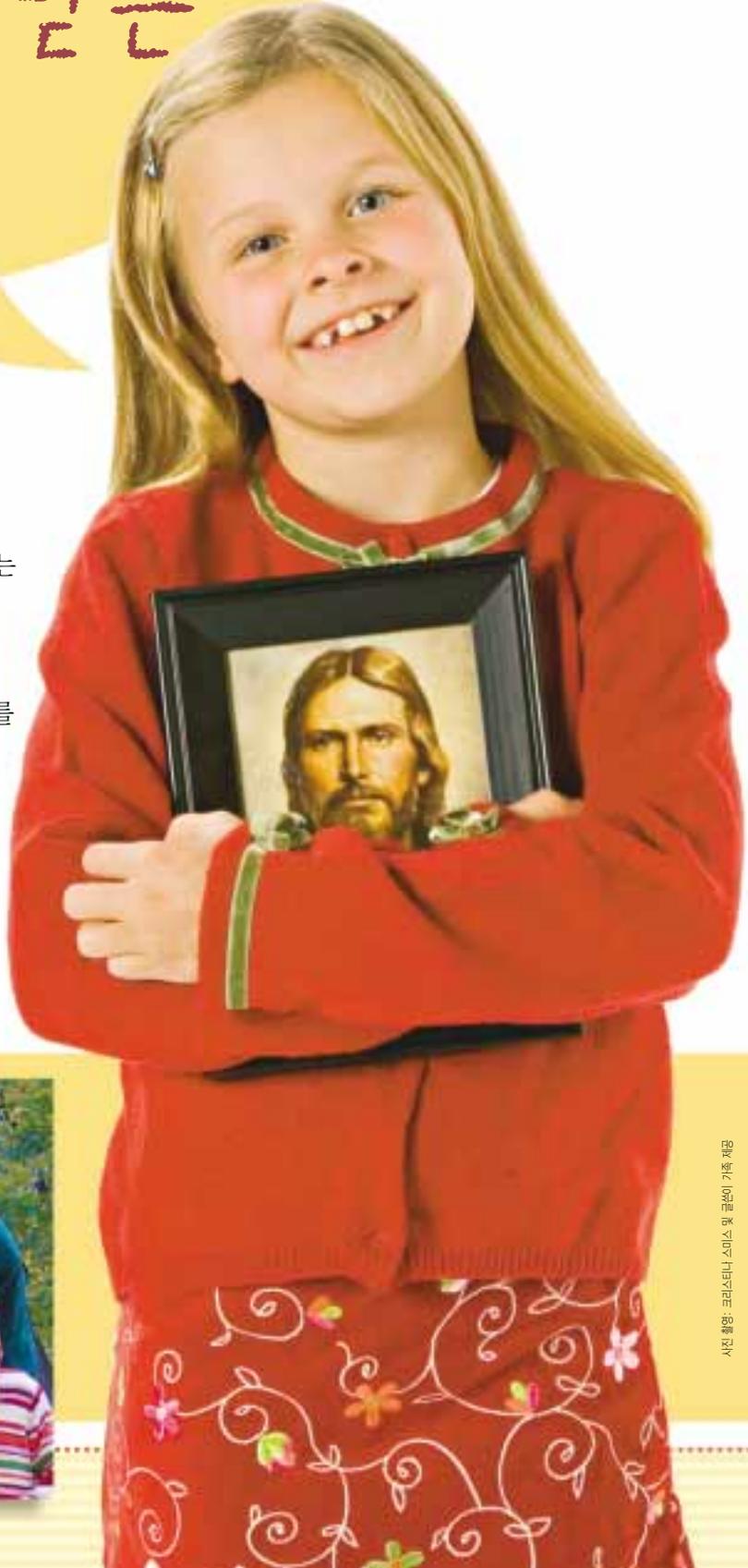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라.”(앨마서 7:13)

저는 여러분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경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경전 내용 중 특히 예수님이 니파이인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은 제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저를 사랑하며 돌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정의 밤을 할 때, 우리는 구주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는 저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아기 여동생 레이첼이 태어났을 때, 동생은 호흡 곤란을 느꼈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레이첼을 안을 수 없었으며 동생은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나아서 우리와 함께 집에 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기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나아서 우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기도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느끼게 해 줍니다.

교사와 지도자는 저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 갈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배우고 듣습니다. 저의 가정 복음 교사인 핵케트 형제님과 판케 형제님은 우리 가족에게 그분들의 간증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은 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선지자들에 대한 글을 읽고 그분들의 삶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는 조셉 에프 스미스(1830~1918)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여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고 있던 도중 폭도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폭도들은 총을 쏘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목이 말에서 내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론교도인 자는 누구든 다 죽여 버릴 테다!” 다른 선교사들은 모두 숲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두목이 총을 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물론인가?” 조셉 에프 스미스는 더욱 굳게 서서 말했습니다. “그렇소, 선생.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실한 물론이요!” 그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총을 치우더니 조셉과 악수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군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당당한 사람을 만나서 반갑소.” 그리고는 말을 타고 떠나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잡지는 저의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그분을 그린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간증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치른 그들의 희생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게는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노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던 라스 라슨이라는 조상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침례를 받는다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정말 강했기 때문에 그는 구주를 따르고 침례를 받기 위해 가족을 떠났습니다. 후에 그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문을 열더니 재빨리 다시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문을 붙잡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것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주를 따르는 것은 그러한 희생을 할 가치가 있을 만큼 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작년에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 삶에서 그분들의 사랑과 성신의 영향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돕기 원하신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린지 엠, 9세,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104쪽 참조.



침례를 받겠다는 나의 결심

호세 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우 리 부모님은 제가 침례를 받도록 준비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이 더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저를 가르쳤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침례에 따르는 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8살이 되자마자 침례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저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준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일곱 살과 두 살 된 여동생이 있고, 저는 동생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동생을

돌봐 주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는 동생들이 조용히 하도록 스스로 좀 더 조용해지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을 도우며, 부모님처럼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날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호세 엠, 9세,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받다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제일회장단은 연례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전세계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탄절 정신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게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관현악단은 템플 스퀘어에서 2004년 12월 4일 영적 모임에서 연주

했으며, 이 모임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영되었다.

힝클리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메시지에서 연말이 되기 전에 몰몬경을 읽는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힘이 스



제일회장단이 연례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성탄절 장식에 둘러싸여 앉아 있다.

며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교회 회원들에게 상기시켰다.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몬경을 읽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 듯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축복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물몬경에서 인용한 성구를 읽고 물몬경은 구주의 신성과 실재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그의 간증을 나누었다.

“이처럼 훌륭하고 주목할 만한 물몬경은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며 온 세상에 선포되어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것을 상호해 봅시다.”라고 핑클리 회장은 말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 기도해 봅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성경뿐 아니라 성경과 짝을 이루는 신세계의 성약에 나온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합시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하며 성탄절 정신에 대해 말했다.

“이 기쁜 절기는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 성탄절 정신에 따른 만큼 우리 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절기는 기억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가족을 위한 시기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하는 시기입니다.”

몬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성탄절기에 받기보다 주는 데 역점을 둘 것을 호소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줘요?’라는 질문은 고무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부드러운 감정이 솟게 하며 추

억의 불길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까?”라고 그는 질문했다. “받기보다 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 정신이 활짝 피게 됩니다.”

“이 절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화평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몬슨 회장은 질문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성탄절기에 보다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보다 많은 적들이 용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서 이 절기에 더욱 친절한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며 관용을 베푸는 것일까요? 성탄절 정신 때문입니다.”

파우스트 회장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성탄절 메시지에서 말했다.

그는 1941년에 있었던 멕시코의 한 가난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홉 자녀를 거느린 한 미망인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웃들은 성탄절

을 맞이하여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 시간과 돈을 제공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상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허리케인과 지진의 극심한 피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근에 교회 인도주의 지원 기금에 기부를 한 사람들은 실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파우스트 회장은 다른 종교를 믿던 과거의 사업 동업자를 회상했다. 그는 성탄절과 추수 감사절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이 사람은 궁핍한 자들을 찾아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순수한 사랑의 귀감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필요 사항을 보면 신속히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라고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구주야말로 구속주로서 속죄를 통해 자신을 바침으로써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



인부들이 산티아고 성전 내부를 개조하고 있다.

사진: 출애굽기 26장

회원들이 칠레 산티아고 성전의 재개방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다

제이슨 스웬슨, 처치 뉴스 기자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일 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칠레 아리카 회원들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던 듯하다.

칠레의 유일한 성전이 재건축을 위해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아리카 회원들은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에 참석하려고 기차 편을 이용하여 동쪽의 볼리비아로 여행했다. 여행은 위험했다. 국경을 접한 인접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상품을 실은 기차가 볼리비아에서 공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험을 알고 있는 아리카 회원들은 안

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에 갔으며 무사했다고 칠레의 지역 칠십인 엠 곤잘로 세폴베다 장로는 말했다. “사람들이 성전에 다시 가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세폴베다 장로는 말했다.

대대적인 개장 후, 칠레 산티아고 성전은 2006년 2월 26일에 재헌납되어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106개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535,000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을 위해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칠레 산티아고 성전은 원래 1983년에 당시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의해 헌납되어 운영 중인 교회의 24번째 성전이 되었다.

성전 건물의 확장 외에 성전의 외부 개축도 있었다. 성전의 침례실은 개축되어

열두 마리의 조각된 황소가 받치고 있는 새로운 침례탕이 설치되었다고 세폴베다 장로가 말했다.

아리카 회원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볼리비아로 간 한편, 다른 칠레 회원들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으로 갔다. 그 외 수천 명의 충실한 칠레인들은 성전이 다시 개방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

“성전이 개장을 위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칠레 회원들에게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에 일치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게 하자고 칠레 회원들에게 제의했습니다.”라고 칠레 지역 회장이며 칠십인인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는 말했다.

사진: 칠레 지역 제단



2월에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칠레 산티아고 성전의 대대적인 개조가 완료되었다.

칠레 회원들은 성전에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칠레 산티아고 성전의 재현납을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했다. 세폴베다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친척들을 2006년 1월 26일에 시작된 성전 일반 공개 행사에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칠레의 교회 공보 역원들은 지역 언론과 협조하여 성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헌납하기 하루 전날인 2006년 2월 25일에 산티아고의 14,000석의 스타디움에서 칠레 문화 축제를 열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될 지역의 후기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헌납식이 계획되었다. ■

2005년 12월 3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설계는 시골, 교외 및 도시 지역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회소의 필수적인 요소 및 표준 설계도를 제시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교회 집회소의 모습은 공통성을 갖게 되는 한편, 세부 작업은 특정 지역에 맞게 맞춤식으로 한다.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 집회소의 새롭고 일관된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 모델은 2층에서 5층까지의 독특한 다층 설계이지만 설계의 다양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교회 건축가들은 설계를 고안할 때 다양한 인구의 특성에 따른 필요 사항을 고려했다. 교실, 초등학교, 상호부조회, 청년 교실 및 예배당의 크기는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또는 기타 조직의 참석 수가 회중의 평균 인원 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에 맞게 계획되었다.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축 옵션은 성장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 상당한 성장이 예측된다면, “단계적”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규모가 더 큰 와드나 추가적인 와드를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증설할 필요가 생길 경우,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각 단

전세계의 집회소 표준화로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함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인 홍콩과 뉴욕의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층 빌딩을 짓는 것밖에 없다. 두 도시의 성전을 바라볼 때, 이들 도시 지역에 맞는 성전을 지으려면 혁신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집회소 설계도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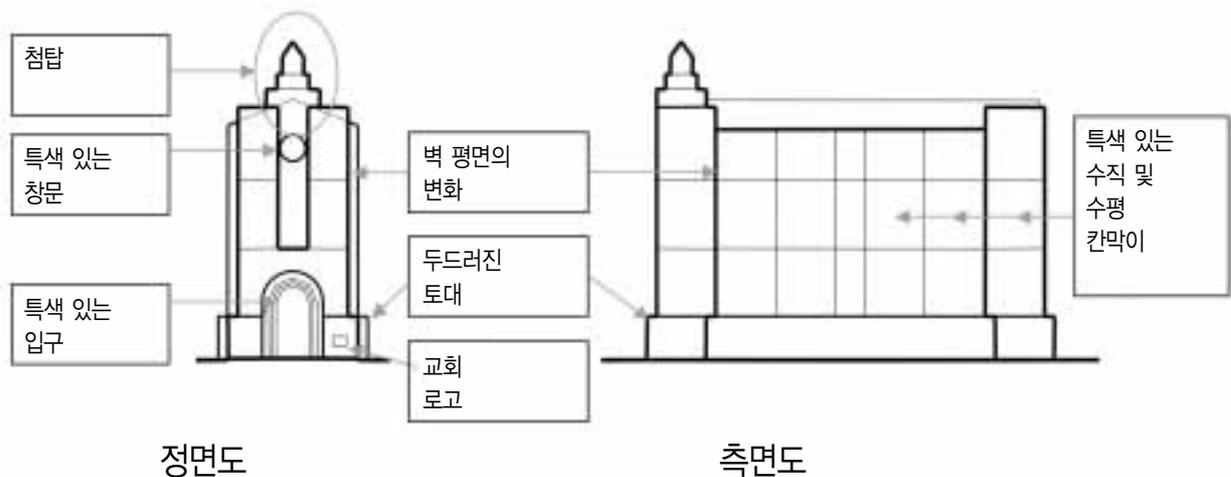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 지역인 경우, 전형적인 집회소 설계도는 작은 평수의 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최근에 뉴욕과 홍콩에는 교회의 전세계 집회소 표준 계획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다층 집회소를 짓게 되었다.

표준 설계도를 개발함

위치, 건물의 크기 및 층수에 관계없이, 전세계의 집회소는 교회가 제시한 설계 지침에 의거하여 표준 양식을 지니게 된다.

2002년에 교회는 교회 집회소의 일반적인 설계와 관련하여 전세계 지역에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범세계 표준



범세계적 집회소 표준 설계를 위해 교회 건축가들은 건물이 종교적 색채를 띠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확인했다.



도시 지역을 위해 계획된 다층 집회소는 북아시아 지역 집회소의 모양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계의 건축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래의 건물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예배당은 이동식 의자를 갖춘 “다용도” 건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활동실과 교실을 추가하고 예배당은 고정된 좌석을 갖추어 한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가 동일한 모습을

피게 하며 집회소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건축되도록 한다.

이러한 효율성의 한 예가 나타나 있는 유타 주 와사치 지역의 경우 교회는 성장에 발맞추어 다수의 집회소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표준화를 통해 건축 비용이 20%까지 줄었다.

“건축비는 성스러운 십일조 기금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금의 혜택을

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설부 건축 및 엔지니어링과의 범세계 표준 설계과 책임자 랜디 스텐슨은 말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 집회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훌륭한 건축 프로그램은 과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축 구조물은 아

름답습니다. ... 우리는 예배의 집을 건축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거 그 어느 때에 지은 것보다 더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아름다움과 뛰어난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비슷해 보인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 믿을 만한 양식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쪽)

설계를 시행함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의 집회소 건축을 위해 교회가 고용한 현지 건축가들에게 설계 지침과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스텐슨 형제는 말한다. 이 설계 지침과 평면도는 지역과 지역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설계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할지, 또한 자연 환기 장치를 사용할지 기계적 환기 장치를 사용할지 등 세부 사항은 현지에서 결정한다.

집회소가 건축되는 지역이 어디든, 건물의 모양과 느낌을 창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건축가는 특정 지역의 문화, 환경 및 건축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 경우 몇몇 지역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주위 환경과 조화시키거나 특정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를 준다. 동유럽과 호주 오지의 집회소들은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에 명시된 동일한 지침과 원칙에 따르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띠 수 있다.

부지에 따라 약간의 맞춤식 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스텐슨 형제는 부지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부지를 선택해서 표준 설계를 수정하기보다는 올바른 부지를 선택해서

설계를 그 부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올바른 부지는 교회를 세상에 알리고 성도들이 부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 주는 비결입니다.”

도시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몇몇 도시 지역의 경우, 다층 건물이 단층 집회소보다 실용적이다. 보통의 집회소는 2.5 에이커 내지 5 에이커의 부지에 지어지는 반면, 폭이 약 13m 되는 다층 집회소는 4분의 1 에이커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지에 지을 수 있다. 다층 집회소는 비슷한 규모의 단층 집회소와 동일한 수용력을 가진, 같은 수의 방으로 구성되지만 단지 수직으로 지어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도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다층 집회소가 건축되고 있다.

뉴욕 시 할렘에 사는 회원들은 적합하지 못한 산업용 건물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었다. 5층짜리 새 건물의 건축이 승인되었는데, 이 건물은 상부 2층은 미완 상태로 둔 채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3층짜리 집회소가 건축되었다.

5층으로 이루어진 설계는 일층에 주차장, 2층에 예배당, 3층과 4층에 교실 및

사무실, 5층에 활동실로 구성되어 있다.

다층 집회소에 대해 교회 본부의 건축가들은 건물이 사무실 건물이라기보다 교회로 인식될 수 있고 교회가 일관성 있고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게 할 요소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그들은 역사상 중요한 성전 및 성당을 포함한 종교 건축의 최고 건축물을 연구했다. 이러한 건물에서 종교적 성격을 띤 핵심적인 설계 요소들을 다층 집회소의 표준 항목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건축 및 엔지니어링과의 전세계 집회소 고객 담당 책임자인 웨인 볼은 말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에는 탑과 뾰족탑, 특색 있는 정면 창문 및 입구, 두드러진 토대 및 교회 로고가 포함된다. 지역 건축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결정된 후 핵심 요소, 구조, 건축 자재, 색깔 및 기타 세부 사항을 적절히 정한다.

집회소, 예배의 장소

볼 형제는 집회소의 양식, 높이,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의 취지는 교회 시설부가 신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전, 집회소 및 기타 시설들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

브라질 어린이들이 노인들에게 도움을 준다

네이 가르시아

교회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2년째 휴일인 어린이날을 바쳤다. “도움의 손길” 조끼를 입은 25,000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약 40,000명의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이 브라질의 120개 도시와 26개 주에서 거의 16,000명의 노인들을 도왔다.

이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은 청소년 및 성인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나누어 줄 개인 용품 세트를 만들고 카드를 색칠하고 준비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300곳의 양로원을 찾아가 세트를 나누어 주고 경험을 나누며 어린이날을 모든 세대를 위한 축제의 날로 만들었다.



브라질의 회원들이 어린이날에 양로원의 노인들을 방문하다.

여러 도시에서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의 부모들은 양로원을 수리하고 노인들의 머리와 손톱 등을 다듬어 주며 기억할 만한 하루를 보냈다. 그 외에도 합창단 공연, 연극 및 무용 등의 활동도 있었다.

벨로리존테에서 500명의 소년소녀들이 광장에 모여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다음 12곳의 양로원을 방문했다. 한 양로원에 사는 마리아 도 카르모라고 하는 98세의 할머니는 손자손녀가 없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많은 손자손녀들을 얻었다. “정말 좋아요.”라고 그녀는 외쳤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행복해요!”

포르투알레그레에서 3,0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은 40곳의 양로원에서 1,3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방문했다. 상파울루 주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45개 도시에 있는 90곳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약

4,500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회원들은 8,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에 참여했다.

살바도르에서 아브리고 데 상 가브리엘 양로원에 거주하는 45명의 노인들은 9세의 가브리엘라 콘세시냐오를 포함한 70명의 어린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콘세시냐오 양은 가장 최근에 ‘입양한’ 할머니를 포옹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도 한때는 어린이였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가족처럼 보살펴야 해요.”

미나스제라이스에서 브라질 우베라바 스테이크는 그 도시에 있는 10곳의 양로원을 방문했다. 에릭 맥시모 스테이크 회장은 그 방문에 대해 크게 고무되었으며 스테이크 회원들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했다.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날에, 우리

자녀들은 이웃들에게 참다운 선물을 주었고, 어린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 자신들을 바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브라질의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인 TV 글로보는 이 행사에 대해 30초 동안 안내 방송을 했다. 대다수의 도시들과 거의 모든 주의 수도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은 이 행사를 취재하여 보도했다.

북부 브라질의 나탈에서 TV 글로보 방송 기자인 쇼요나라 알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많

은 사랑을 보여 주었으며, 받기보다는 주었습니다.”

다른 TV 방송국들도 그날 다른 시간대에 이 행사를 취재하여 상파울루 주의 318개 도시에 방송을 내보냈으며,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증가했다.

모든 행사는 각 지역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 책임자의 인도를 받았다. 책임자는 민간 기업, 정부 기관 및 언론 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이 외에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도움의 손길 행사는 2001년부터 실시되었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사회 봉사 단체들이 참여했다. 2005년에 여러 도시에서 150건 이상의 행사가 펼쳐졌다. 2005년 4월에는 약 50,0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약 200곳의 공립 학교를 수리하고 청소했다. ■

2006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회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를 참조한다.

1. 질문과 복음 그림 패킷의 그림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구주의 생애를 복습하게 한다. 예를 들면, 복음 그림 패킷 200 (예수님의 탄생)을 높이 들고 구주의 탄생을 복습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림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구주의 탄생에 대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그림 속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질문한다. 다음의 그림을 이용하여 비슷한 질문을 한다. 209 (어부들을 부르심), 230 (십자가에 못박히심), 및 239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각 어린이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를 나누어 준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지명한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피아노 반주자에게 조용한 배경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 각 그룹으로 하여금 그들의 그림을 보여 주게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구주와 그분이 지상에 오시게 된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

장갑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친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을 보여 주고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영이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지상에 왔을 때, 우리 각자는 육신을 받았다 (장갑을 낀다). 우리는 지금도 움직이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배울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보살펴야 할 훌륭한 육신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은 분리된다 (장갑을 벗는다). 육신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아직도 살아 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다시 합쳐지게 되고 (장갑을 낀다) 영과 육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였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 중 몇 명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75~177쪽 참조) 복음 그림 패킷의 그림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각 그림 뒷면에 있는 그림 설명을 읽거나 그들 스스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부를 노래나 찬송가를 선택한다. 몇 가지 그림을 제언한다면 233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 315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심), 403(첫번째 시현)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22~33절을 읽게 한다.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간증했듯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간증한다. ■



모든 청년 독신 성인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다음은 제3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독신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침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 한국 청년 독신 성인 네트워크 결성

스스로 만드는 모임 독신 회원들의 모든 활동은 매년 1월 셋째 주에 열릴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전국의 독신 의장들이 모여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그곳에서 결정된 전국의 독신 회원들의 활동 일정은 함께 공유합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의 전국 소식지 발간 중부 종교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에서 일어나는 독신 회원 활동 소식을 담은 소식지가 발간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신 회원들의 활동 내용은 전화 회의 및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하고 한국 교회 홈페이지의 종교교육원, 스테이크/지방부란을 활용하여 소개합니다.

2. 청년 독신 성인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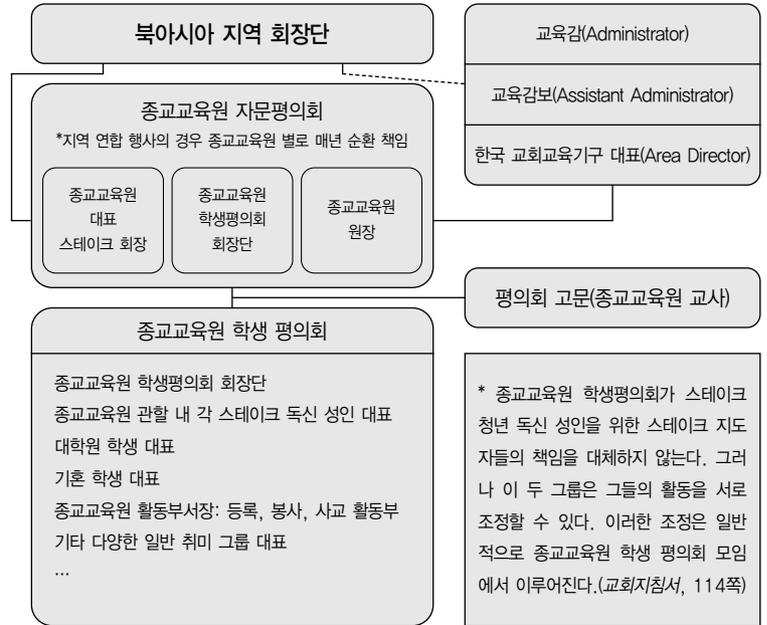
청년 대회 4년 주기의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은 4년마다 반복됩니다.

- (㉠) 1년차(2006년) - 각 스테이크/지방부 별로 대회 개최(봉사 활동 또는 산행, 스테이크 가족 캠프 형태)
- (㉡) 2년차(2007년) - 전국 5개 종교교육원 별로 종교교육원 산하 스테이크/지방부 연합 대회 개최
- (㉢) 3년차(2008년) - 종교교육원 경계를 넘어 스테이크/지방부 연합 대회 개최(연합할 경우 최대 4개 지역이 모일 수 있다. 지역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 (㉣) 4년차(2009년) - 전국 청년 대회
이 계획에 따르기 위해 2006년 청년 대회는 각 스테이크/지방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대회에 모든 청년 독신 성인이 참여하도록 청소년 대회는 겨울에 실시합니다. 단, 여름에 청소년 대회를 해야 한다면 부모나 기혼 회원들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합니다.

전국 청년 독신 성인 축제 매년 독신 회원들의 축제를 전국 단위로 개최합니다. 다섯 개 종교교육원이 돌아가며 주관하고, 분야는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공연장을 빌려서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독신 회원들의 개인 및 단체 공연을 할 것입니다. 2006년에는 중부 종교교육원에서 음

악제를 준비하고 있고, 2007년에는 광주 종교교육원에서 민속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3. 한국 청년 독신 성인 조직



각 스테이크/지방부 독신 대표는 그 지역 종교교육원에 모여 종교교육원 독신 평의회에 참석합니다. 이 평의회는 독신 회원 중 한 명이 의장으로 봉사하며, 담당 신권 지도자로 종교교육원 산하 스테이크/지방부 회장이 봉사합니다. 이 평의회를 통해 여러 지역의 활동 모임을 조정하여 모임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더 효과적인 독신 활동을 모의합니다. 이 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스테이크/지방부 회장단에 통보되어 각 지역에서 신권 지도자들의 지지와 축복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 칠십인이자 교회 교육 기구 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민혜기 장로는 “모쪼록 차세대 교회 지도자인 이들과 함께 협의하고 결의한 사항들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세심하게 스테이크 및 종교교육원 일정에 반영되어져서 각 스테이크는 물론, 한국 교회 전체에 또 하나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며 새로운 계획에 거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한 여름 푸른 그늘을 사랑하는 덩쿨손은 그 사이사이에 곧고 긴 나무 막대기를 품고 있다. 푸르게 돌아나는 연약한 줄기가 멋진 그늘이 되기까지는 덩쿨에게 힘이 되고 방향을 잡아 줄 막대를 대는 주인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다. 교회의 미래라 불리는 초등학교 어린이와 청년, 청년들을 위해 제일회장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라는 쇠막대를 마련하였다. 이 쇠막대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목표 달성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발전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복음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좋은 습관과 간증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게 된다. 세 가지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관들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훈련하는 활동 목록

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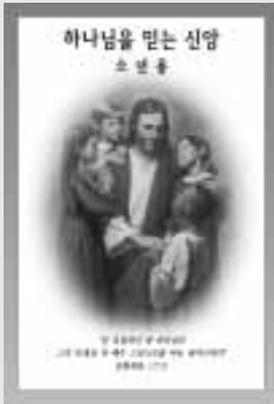
초등학교 -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침례받을 때 맺은 침례 성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표준을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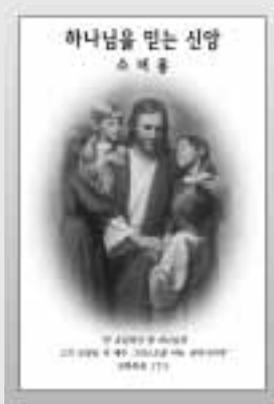
▶ 기본 요건

-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는다.
 - 계명을 지키고, “나의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
 - 부모를 존경하고, 가족에게 친절히 대한다.
 - 십일조를 바치고, 십일조 결산에 참여한다.
 - 정규적으로 성찬식과 초등학교에 참석한다.
- ▶ 기타 요건
- 여러분의 간증을 적는다.
 - 신앙개조를 외우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도전하여 배워야 할 몇 개의 목록이 더 있다. 그것은 “복음 학습 및 복음 생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 재능 개발, 신권을 받기 위한 준비(형제), 청년이 되기 위한 준비(자매)” 이 네 가지이다. 각 목록은 이것을 향상하도록 훈련하는 활동을 열 개씩 제안한다. 어린이들은 매년 각 목록에서 두 가지씩 달성해야 한다.



물품 번호: 36812 320



물품 번호: 36813 320



물품 번호: 36035 320



물품 번호: 36676 320



물품 번호: 36677 320



물품 번호: 36678 320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받는 신권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집사, 교사, 제사 신권 소유자에게 필요한 가치관을 제안하고 훈련시킬 활동 목록을 담고 있다. 청남들은 차례로 이 목표들을 달성해야 한다. “신권 의무와 표준, 가족 활동, 정원회 활동, 개인 목표(영적인 발전, 신체적인 발전,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하나님에 대한 의무 봉사 활동, 나의 개인 일지” 등의 목록은 청남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권 소유자로, 지도자로 봉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각 목록에서 제안하는 모든 활동을 완수해야 하고, 개인 목표 목록은 각 활동들 중 여덟 개를 완수해야 한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는 청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성전 의식을 준비하며,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가르친다. “신앙, 신성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및 고결성” 등 일곱 가지 가치관을 제안하고 이를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활동을 담고 있다. 각 가치관마다 열거된 일곱 개 활동 중에서 1번 활동부터 3번 활동까지는 반드시 해야 하고, 4번부터 7번 활동은 선택하여 그 중 세 가지를 달성한다. 각 가치관에서 여섯 개의 활동을 완수한 뒤에 각 가치관 별로 스스로 계획한 활동을 한 가지씩 더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것이다.

활동 계획하기

프로그램에 나온 활동들이 각기 소요 시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활동을 선택하여 시작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도자는 프로그램에 나온 활동을 수행할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목록에서 “신앙개조 제12조를 읽는다.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라는 활동을 한다면 어린이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가족 회의나 가정의 밤, 부모와의 접견 시간, 초등학교 시간일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중 ‘지식’에서 “2. ... 미래의 가족이나 가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이나 재능을 배운다.”라는 활동을 할 경우에 청녀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와드나 스테이크, 또는 지역 사회에서 찾아 초대하여 청녀들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활동을 선택하여 함께 달성하는 것이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을 계획하는 청녀와 청녀 역원.

더 효과적이다. “아론 신권 - 하나님의 대한 의무” 중 “신체적인 발전”은 중거리 달리기와 수영, 야영 활동, 응급 처치법 등을 배워야 하는데 와드의 청소년들이 함께 한다면 청소년과 역원들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적인 여건 상 수행하기 힘든 활동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개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의 밤에서 공과를 해야 하는 활동을 하거나 정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의 청남들이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에서 일곱 가지가 나열된 ‘정원회 활동’을 해야 한다면 역원들은 적절하게 대체 방안을 계획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가진 탁월한 영향력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과 성품에 미칠 수 있게 부모와 역원들의 지혜로운 도움이 필요하다.

동반자 - 부모와 역원들

이 프로그램에서 훈련하는 것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새로운 것들이다. 생소한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겪는 실수와 그 안에서 얻는 크고 작은 성과들을 곁에서 돕고 나눌 동반자가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은 그 동반자로 부모와 역원들에게 부름을 주었다. 활동을 선택할 때는 부모나 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활동을 마친 후에도 부모나 역원에게 보고한 뒤에 서명을 받아야 완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을 수행할 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 많고, 가정의 밤, 성찬식, 각 보조조직 모임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부모와 역원들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도움과 계획, 경험과 간증을 이야기하는 접견이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무엇 보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할 수 있게 격려와 사랑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일 것이다.

이것을 필수 - 일지 쓰기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간증과 경험을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장 기록인 일지는 활동 완수를 보고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에는 프로그램 활동에 관련하여 일지를 쓸 때 이런 목록을 쓰도록 제안했다. 선택한 활동, 활동을 실행할 스스로의 계획, 부모나 지도자의 승인 서명, 완수 예상일,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 부모 또는 지도자의 서명, 날짜, 소요 시간. 아울러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는 것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부분이다.

노력이 열매를 맺다 - 달성 증서와 메달

모든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감독/지부장과 접견을 하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고한다. 그 후 프로그램 완수를 증거하는 증서와 메달을 받는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들이 쓴 일지. 발산 와드 청녀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며 배웠던 것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다고 한다.

식막대를 잡아라

1.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들은 지난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새로 생긴 치마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 약 한 달 동안 상호부조회 회원의 도움을 받아 서툰 마름질, 바느질 솜씨를 동원하여 직접 치마를 만든 것이다. 발산 와드 청녀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할 때 같은 활동을 선택하여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 시간에 함께한다. 학업 때문에 바쁜 청소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프로그램을 완수하도록, 청녀들의 흥미를 끄는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청녀 회장단은 청녀들이 즐겁게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했다고 한다.

ㄱ. 모임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이렇게 했을 때 청녀들이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ㄴ. 교회에 갈 때는 회장단과 함께 간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와드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장단의 차로 함께 이동한다.)

ㄷ. 회장단이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한다.(청녀들이 회장단이 쓴 일지를 보며 영향을 받는다.)

ㄹ.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와드 회원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모임을 하며 찍은 사진들은 청녀들의 개인 일지에 함께 보관된다. 사진이 들어간 일지를 쓰면서 예쁘게 일지를 꾸미는 것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개인 발전 기록부 프로그램이 청녀들에게 선사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인 김지은 자매는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며 느낀 바를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시작할 때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거나 몰몬경을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와 청녀 회장단. 청녀들이 입은 체크 무늬 치마는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으로 청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읽으면서 극복하려고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어를 배운 것인데, 정말 설레었던 기억입니다. 그 때 느낌을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언어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배우는 데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성취했을 때 엘마서에서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는 엘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은 이렇게 제게 도움을 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친구와의 관계도 더 나아지게 도와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머니가 되면 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합당한 성도가 되는 방법과 사회에서 일등이 되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2.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청남 임종민 형제 가족

올 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임종민 형제는 교사 직분에 성임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임 형제는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중 집사 과정을 달성하였는데 이 과정을 함께한

어머니 이옥 자매는 아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억한다.

“가정의 밤에서 가족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스스로 운동회를 빠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악기를 배워서 성찬식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서 참 기뻐했습니다. 간증과 기쁨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아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정의 밤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 상황을 함께 토론하는데, 성취한 부분을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수정하면서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이 주일이 걸리는 활동을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 제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해서 가족 앞에서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 가장 보람있는 활동이었다는 임종민 형제는 집사 과정을 달성하면서 이런 목표를 갖게 되었다.

“제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선교 사업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물문경을 꾸준히 읽어서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 다섯 번은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사 정원희 제1보좌로 부름을 받은 임 형제는 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초동회 강규이 자매, 강한빛 형제 가족

“나는 소리 지르거나 징징거리지 않고 표현한다.

나는 진지하며 고상하고 친절하다

나는 똑바로 눈을 바라보고 똑똑하게 말한다.”

매일 아침 규이와 한빛이는 문에 붙인 이 세 문구를 소리 내

어 읽고 가족과 함께 기도한 후에 학교에 간다. 올 해 초등학교 5학년인 강규이 자매와 3학년인 강한빛 형제는 부모님의 사려 깊은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있다. “활동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가정의 밤 활동입니다. 딱지치기, 성전 그림 그리기 같은 것을 했는데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모두 재미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침에 함께 경전을 읽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설명하고 간증해 주시면서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전을 읽어주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 경전을 많이 읽게 되어서 재미있습니다.”

물론 규이와 한빛이가 처음부터 모든 것에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어머니 이경화 자매는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자신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려 노력했다고 한다.

“접견이나 가족 평의회, 아빠와 아이들의 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서로 우애있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이야기하죠. 저희나 아이들이나 그런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운다기 보다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 중 경전 읽기를 하기 위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라고 소리치지 않고 뽀뽀를 해주면서 깨웠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발전은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깨닫고 복음대로 생활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로서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늘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임종민 형제 가족, 왼쪽부터 아버지 임만규 형제, 임종민 형제, 어머니 이옥 자매.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규이와 한빛이네 가족, 왼쪽 위부터 어머니 이경화 자매, 아버지 강남현 형제, 막내 강한영 자매, 큰 딸 강규이 자매, 아들 강한빛 형제.

특별 모임

“선교사들은 회원들이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의 인내가 방송되자 선교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맨 가장자리 통로로 자리를 옮겼다. 선교사들이 벽을 따라 서서 병풍을 만들자 좌석과 통로에 있는 모든 공간은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촘촘하게 메우기 시작한다. 단상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 윌리엄 알 워커 장로와 지역 칠십인 민혜기 장로, 이용환 장로,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 서울 선교부



셀러스 회장과 각 스테이크의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여실히 보여준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함께하는 노변의 모임은 지난 2월 19일 저녁,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첫번째 연사였던 링우드 회장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아울러 회원들에게 각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뒤이어 연단에 선 워커 장로는 아이어링 장로의 말씀에 앞서 “우리는 오늘 십이사도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우리의 귀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이라는 말로 청중을 부르며 말씀을 시작한 아이어링 장로는 먼저 구주의 사랑과 실재하심에 대해 간증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

하게 되도록,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되도록, 언젠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도록 속죄하셨습니다. ...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이날 모임에서 영원한 가족과 해의 왕국의 축복을 위해 성신을 동반자로 생활하도록 권고했고, 그 권고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말씀했다.

“성신이 동반하도록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신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 물몬경은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책 같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것은 성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물몬경을 읽으면 성신은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 성신은 악한 것과 분쟁에 의해 상합니다. 분쟁, 악에서 멀리 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분쟁이라도, 악한 것이 텔레비전에서 보일 때 빨리 지나가십시오. 우물쭈물하면 성신이 떠납니다. 회개는 매일, 매시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시중 재치있는 말로 청중들을 웃음짓게 한 아이어링 장로는 말씀하는 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어링 장로는 말씀을 마치며 “헝클리 회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 민족 만큼 노래를 잘하는 민족은 없습니다.”라며 이날 합창을 한 인천 위트니스 합창단과 서울 남 스테이크 합창단의 노래를 칭찬했다.

한편, 아이어링 장로의 간증과 권고는 모임에 참석한 수많은 이들에게 성신과 함께할 때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 특히 이날 구도자로 참석한 두 가족이 침례의 물가로 다가갈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다.



가운데 서 있는 박대생 형제와 석정숙 자매는 양 옆에 선 구본경 자매와 최윤환 형제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구도자로 이 모임에 참석했던 박대생 형제와 석정숙 자매는 아이어링 장로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에 대한 열쇠를 찾았다고 한다. “아이어링 장로님이 말씀하시다가 침례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였어요.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적하면서 “침례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분명 저를 가리켰다고 느꼈습니다. 제 주변은 대부분 회원들과 아이들뿐이었어요. 장로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듯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지기 친구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침례를 망설이던 이 가족은 노년의 모임 일주일 후인 2월 25일에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침례를 받았다.

지금은 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회원이 된 윤승준 형제 역시 이 모임에 참석한 후에 침례 받고 개종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오신다기에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이신 것처럼 큰 기적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행복, 사랑 등의외로 평범한 소재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윤승준 형제와 윤 형제의 딸 윤주희 자매의 침례식.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모임 후에 일상에 돌아와 생활하다보니 그때 들었던 장로님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제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웠습니다.” 윤승준 형제는 딸 윤주희 자매와 함께 3월 5일에 침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 침례를 받았던 아내 이효원 자매와 함께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나선경 기자, 조현아 기자)

지역 소식

광주 스테이크 '아담과 이브' 모임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아담과 이브' 활동으로 해남 대흥사와 두륜산 일대를 등반했다. '아담과 이브'는 효도 프로그램으로,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교회 내 노년층 회원들을 위해 나들이와 식사 초대 등 여러 활동을 펼친다. 이번 등반에 참여한 정순환 형제는 “그 동안 이렇게 여행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즐거웠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 주어서 감사”하다며 모임을 준비한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해부터 65세 이상 회원들을 위한



'아담과 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을 나선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

모임을 계획하였고,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직접 배운 기술로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하는 활동과 레크레이션, 봄소풍, 온천 여행 등을 통해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다.(최진 기자, 기사 제공 박성률 형제)

우림 장학 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

우림 장학 재단은 지난 2월 11일, 서울 동 종로 교육원에서 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후기 성도 학생들은 우림 장학 재단의 장학금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재단 대표인 최옥환 형제는 “재단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후기 성도 학생들을 위해 여러 성도의 작은 정성이 모인 것”라며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전건우 기자)

청주 스테이크 최수영 형제, BYU 하와이 대학교에서 순금 졸업생상 받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최수영 형제가 미국 브리검 영 하와이 대학교에서 순금 졸업생상을 받았다. 이 상은 개교 5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평화와 발전에 공헌한 동문 12명을 선정하여 수여한 것이다. 최 형제는 현재 청주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기사 제공 최수영 형제)

새로 부름 받은 한국 취업 센터 책임자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전종철 형제와 차영심 자매가 복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전종철 장로와 차영심 자매는 한국 취업 센터 책임자로서 각 지역의 취업 담당 직원들을 훈련하고, 회원들의 진로 교육과 상담 활동을 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성전 사무장으로 지난 해에 은퇴한 전종철 장로는 서울 동부 지부 회장,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감독, 서울 북 스테이크 회장단, 서울 선교부 회장 등으로 봉사했고 차영심 자매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청년 대회에서 만난 부부 이야기

지금 함께 지내는 영원한 동반자를 청년 대회를 통해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부를 보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역의 리아호나 기자들이 직접 도와 드립니다.

부문: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와 간증
사진: 가족 사진 1장, 청년 대회 사진 1장
기한: 4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바로 잡습니다

지난 3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 9쪽 새로운 회원의 개종 이야기에서 한승수 형제의 아버지의 성함을 “장승택”에서 “한승택”으로 바로 잡습니다.

지역 단 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종교교육원
갈릴리 축제 및 졸업식, 입학식
- 부산 서 지방부
신입 독신 환영회
- 부산 스테이크
제2회 부산 스테이크 회장 배 추구 대회
- 전주 스테이크
동반 대회
전주 와드 청소년 축제 “나이트”
- 청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졸업식과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감독: 윤석주(전임: 이상교)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감독: 전경일(전임: 길윤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김정용 장로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뉴욕 남 선교부